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합니다



2024
세계유산축전
| 선암사 · 순천갯벌 |

국가유산
국립
박물관
방문 캠페인
영문
Visit
Korean Heritage
Campaign

2024 세계유산축전 선암사·순천갯벌



세계유산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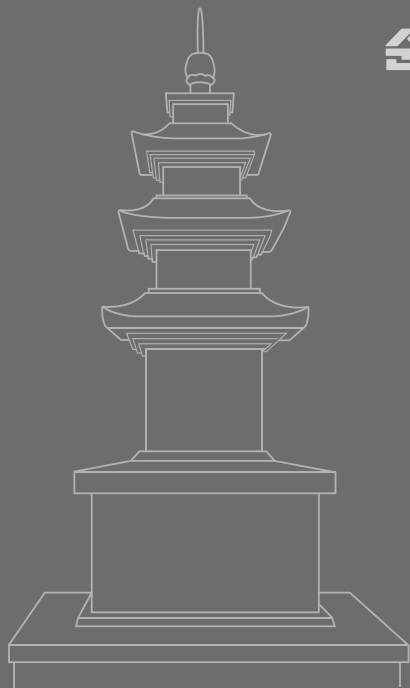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가치와 활용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



2024. 10. 25.(금) 10:00-18:00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4층 컨벤션홀



주최



국가유산청



전라남도



주관



국가유산진흥원



순천시세계유산보존협의회

일정표

※ 사회자 손은설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등 록	09:30	10:00	ˆ 30	참가자 및 내빈 등록	
제 1 부					
내빈소개	10:00	10:02	ˆ 2	내빈소개	사회자
공모전 시상	10:02	10:17	ˆ 15	세계유산 영상 공모전 시상	노관규(순천시장)
영상상영	10:17	10:22	ˆ 5	영상상영(최우수작 영상 2편)	
개 회 사	10:22	10:25	ˆ 3	개회사	김준선(순천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
환 영 사	10:25	10:28	ˆ 3	환영인사	노관규(순천시장)
축 사	10:28	10:31	ˆ 3	축하인사	강형구(순천시의회 의장)
제 2 부					
기조강연 1	10:40	11:10	ˆ 30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적극적 활용과 관광	아이라로렌 (미국 템플대학교)
기조강연 2	11:10	11:40	ˆ 30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례	삭가셈 탄티야와롱 (태국 수코타이주 도시개발공사)
점 심 (11:40~13:00)					
발표 1	13:00	13:30	ˆ 30	습지의 올바른 관리사례_순천습지를 중심으로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센터)
발표 2	13:30	14:00	ˆ 30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문경오 (전. 한국의 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휴 식(10분)					
발표 3	14:10	14:40	ˆ 30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현재	김정은 (컬처 & 헤리티지)
발표 4	14:40	15:10	ˆ 30	세계유산 선암사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전영우 (국민대학교)
휴 식(10분)					
발표 5	15:20	15:50	ˆ 30	주민 참여형 유산의 활용과 정책	권재현 (안양대학교)
발표 6	15:50	16:20	ˆ 30	세계유산 도시의 시민역할과 인식	허 권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휴 식(10분)					
종합토론	16:30	17:30	ˆ 60	종합토론 좌장 : 정광용(한국전통문화대학교) 토 론 자 : 이종수(순천대학교), 이희승(청암대학교), 금창현(영주시청), 석장호(진주문화관광재단), 김인철(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고경남(신안군청)	
정 리	17:30	17:40	ˆ 10	폐 회	
만 찬(90분) / 17:40 ~ 19:00					
휴식	19:00			휴 식	

개회사



먼저 이렇게 자리해 주신 노관규 순천시장, 강형구 순천시의회장
및 여러 발표자 선생님들과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인 선암사와 세
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인 순천갯벌의 등재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였으며 또 전남도, 당시 문화재
청이었던 국가유산청과 힘을 모아 전세계를 무대로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산들이 어떠한 세계적이면서도 탁월한 보편적가치
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산에 등재되기 위해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등
재 이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실행계획을 만들고 홍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순천은 최초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공존하
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순천인 것이지요.

그러나 등재 이후 우리의 노력은 등재 신청시 가졌던 다짐에
미치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등재 이후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돌아
보는 시간이 될 것이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멀리 미국과 태국에서 오시 두 분 발표자님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발표자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귀중한 발표를 해주시는 것인 만큼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지역의 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유산지역에서도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원근각지에서 마다치 않고 함께 자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5.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 **김 준 선**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장 노관규입니다.

순천이 가진 세계유산의 의미를 깊이 살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문가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순천이 세계유산 보유 도시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세계유산의 보전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
어,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역할을 합니다. 순천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더 나아가 인
류 전체의 과제입니다.

생태를 기반으로 조금은 더디더라도 순천만을 보전하며 도시
발전을 꾀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웠던 것이 지금 현재 순천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흑두루미가 부양하게
된 순천 갯벌은 해외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
치를 발굴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하였습니다.

이제는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갯벌의 보호와 관리를 넘어
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과제의 중심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순천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에코벨트이자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이어주는 연결점이 바로 국가정원인 것입
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단순히 정원의 의미를 넘어, 순천의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순천 전 구간으로 유산의 개념을 확장하
는 공간인 것입니다.

또한,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저지선으로 만든 국가정원은
순천시 랜드마크가 되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생태 보존이
도시 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순천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동시 보유 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옛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보전
되어 있는 순천 낙안읍성과 매산등을 중심으로 한국 100년의
근대문화를 보여주는 근대 선교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새롭게 등
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유산의 가치와 활용을 함께 고
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논의가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 보존
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10. 25.

순천시장 노 관 규

축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 세계유산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 강형구입니다.

「2024 세계유산축전 선암사순천갯벌 세계유산포럼」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세계유산포럼을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던 노관규 시장님과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위회 김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계유산포럼에 참가해 주신 아이라로렌 미국 템플대학교 교수님, 삭가샘탄티야와룽 태국 수코타이주 도시개발 공사 이사님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여러분 등 관련된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세계유산의 도시인 순천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담고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조계산의 정기가 가득한 천년 고찰 선암사와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포함한 수많은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 순천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선암사순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가치 보존과 활용’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이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의 가치를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과정을 되돌아보며 우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현명한 방안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낙안읍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순천시의회도 오늘의 이야기들을 거울삼아,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계유산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5.

순천시의장 강 형 구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적극적 활용과 관광

아이라로렌
(미국 템플대학교)

SLIDE NUMBER ONE:

Good morning. I am so honored to be here today to represent IFEA Asia at this important forum.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forum organizers and to Professor Ganghoan Jeong, President of IFEA Asia and Dean of the Festiv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at Pai Chai University.

SLIDE NUMBER TWO:

The importance of celebrating our heritage is of global importance and this quote from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lso known as UNESCO, expresses that global importance.

SLIDE NUMBER THREE:

Everyone in this room recognizes the fact that we are living in dangerous and turbulent times around the world. Why is the promotion of World Heritage Festivals so important in these times? Celebration and festivals are universal in nature. They transcend language, culture, race, gender, age, religion and all other human traits. We who work in the world of cultural festivals truly believe that the things that bring us together are stronger than the things that divide us.

SLIDE NUMBER FOUR:

So, if we can all agree that cultural heritage festivals are important, how do we define them? These words give a great definition. (THEN READ SLIDE)

SLIDE NUMBER FIVE:

When done well, cultural festivals have the ability to bring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together and to heal divisions in society. This sounds like I am making festivals far too important, but I truly believe that these festivals have a great power. (THEN READ SLIDE)

SLIDE NUMBER SIX:

Festivals as a Catalyst for World Heritage Promotion

Festivals can be powerful tools to promote world heritage sites. By creating immersive experiences that celebrate local culture and history, they attract visitors, raise awareness, and foster a sense of connection to these invaluable places. Here are some ways festivals can be used to promote world heritage sites:

1. Showcase Local Culture and Traditions:

- **Authentic Performances:** Feature traditional music, dance, and crafts that are deeply rooted in the site's history and culture.

- **Cultural Demonstrations:** Highlight local customs, rituals, and traditions to provide visitors with a firsthand experience.

2. Highlight the Site's Significance:

- **Educational Workshops:** Offer informative sessions on the site's historical, archaeological, or cultural importance.
- **Guided Tours:** Organize guided walks or tours that delve into the site's stories and significance.

3. Foster Community Engagement:

- **Involve Locals:** Encourage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creating a sense of ownership and pride in their heritage.
- **Community Projects:** Organize volunteer activities or community projects that help preserve and protect the site.

4. Create a Memorable Experience:

- **Thematic Events:** Design festival activities that align with the site's history or unique characteristics.
- **Interactive Exhibits:** Use innovative technologies to create interactive exhibits that engage visitors and bring the site's stories to life.

5. Promote Sustainable Tourism:

- **Local Products:** Showcase local handicrafts and products to support the local economy and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ourism.
- **Responsible Practices:** Promote responsible tourism practices, such as minimizing waste and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By combining these strategies, festivals can become powerful platforms for promoting world heritage sites and inspiring a new generation of advocates for cultural preservation.



2024 World Heritage Festival: Seonamsa Temple and Suncheon Bay, World Heritage Forum

The Promotion of World Heritage Through Festivals

Ira L. Rosen MA, CFEE



UNESCO Quote:

“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Why Should We Promote World Heritage Through Festivals?

The Universal Nature of Celeb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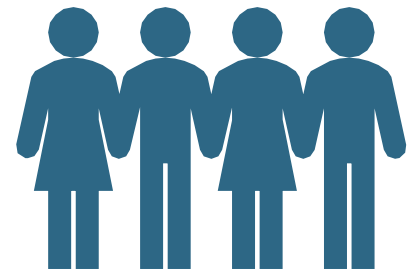
Understanding Cultural Festivals and Their Importance

- Cultural festivals are organized events that celebrate unique traditions, arts, and histories. They play a crucial role in preserving cultural identities and enriching community bonds. By attracting tourists, festivals can also boost local economies. Understanding the meaning behind these events helps recognize their importance in promoting global cultural awareness and appreciation.

The Power of Cultural Festivals

Cultural festivals serve as vital platforms to showcase global heritage. They bring together diverse communities and attract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Festivals celebrate traditions, arts, and customs while fostering an environment of learning and appreciation.

Festivals can be powerful tools to promote world heritage sites. By creating immersive experiences that celebrate local culture and history, they attract visitors, raise awareness, and foster a sense of connection to these invaluable places



Examples of How Festivals Can Be Used To Promote World Heritage Sites

- 1. Showcase Local Culture and Traditions**
- 2. Highlight the Site's Significance**
- 3. Foster Community Engagement**
- 4. Create a Memorable Experience**
- 5. Promote Sustainable Tourism**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례

삭가셈 탄티야와롱
(태국 수코타이주 도시개발공사)

MR. SAKGASEM TANTIYAWARONG

Managing Director

- Sukhothai City Development Co., Ltd.

President

- Sukhothai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Event organizer

- Light and Sound Show of Sukhothai Loykratong Festival
- Sukhothai Art Craft and Beyond Festival
- Sukhothai Countdown 2023 Festival



Sukhothai: The begining of Thailand

The former capital of the Thai kingdom, held the largest territory 764 years ago. The name "Sukhothai" comes from two words, "Sukho" (happiness) and "Uthai" (dawn), meaning "The Dawn of Happiness." This reflects the serene and tranquil atmosphere that defined the kingdom in its golden ag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1991

UNESCO
Creative City
Crafts and Folk Art



2019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03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2022

SUKHOT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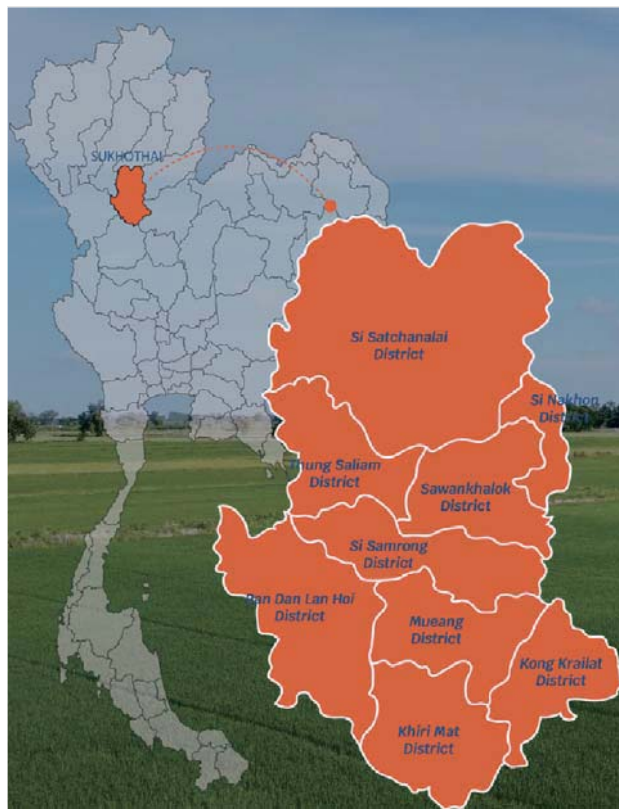
A HISTORIC TOWN WITH
GLOBAL SIGNIFICANCE

SUKHOTHAI LOY KRATHONG & CANDLE FESTIVAL WINS GOLD PRIZE THE 2023 PINNACLE AWARD(NIGHT TIME ECONOMY FESTIVAL)



SUKHOTHAI CITY has been awarded as a WORLD FESTIVAL AND EVENT CITY AWARDS 2023





Location

Sukhothai is located in the lower edge of the northern region, 358 kilometers from Bangkok. The province covers an area of 6,596 square kilometers.

Geography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parts of Sukhothai is a plateau. The middle area is a plain with Yom river flows from north to south in a distance of about 170 kilometers. Also, Khao Luang is highest peak mountain, approximately 1,200 meters above sea level. Sukhothai consists of 9 districts, particularly Muang Sukhothai District has the highest population of 102,555.

Climate

Sukhothai has 3 seasons: winter, summer, rainy or green season as well. Generally, average temperature of 31 degrees Celsius.

Population

According to Sukhothai total population of 586,830 people in present time, therefore density is 88.96 people per square kilometer.

Government Sector



Ministry of Culture



Fine Arts
Department



Sukhothai
Province



Sukhothai Historic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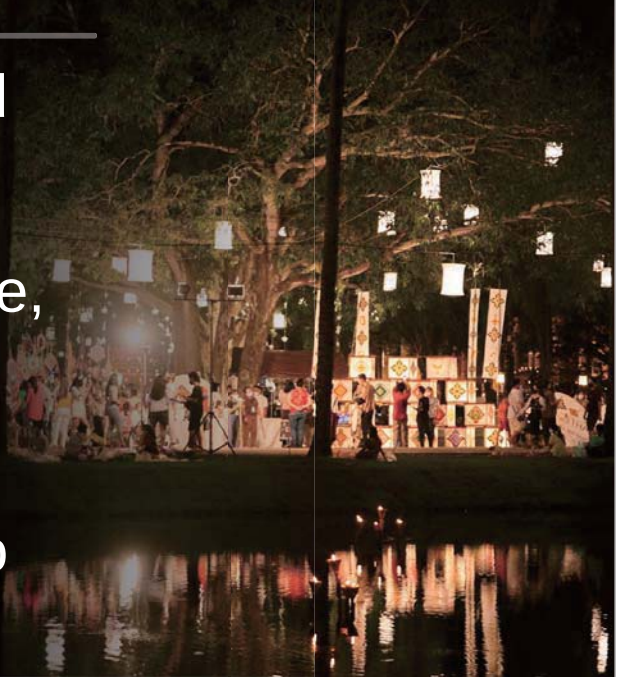
Cover the areas of 70 square kilome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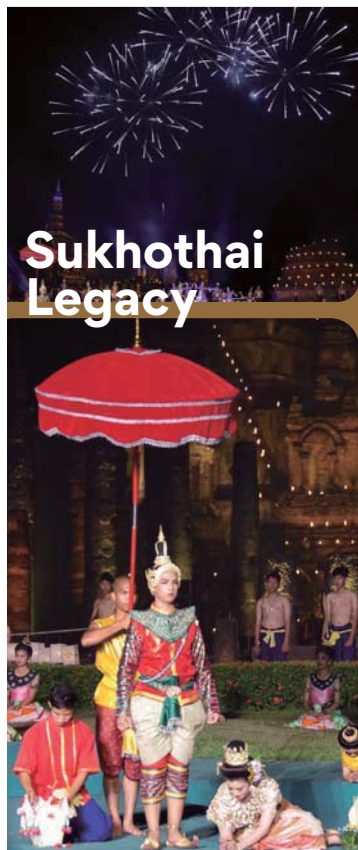
Sukhothai Historical Park

Rules and Regulations

- Strictly maintain the area and ancient sites
- Use natural materials for decoration, reduce plastic use, separate waste and recycle
- Use natural color tones
- Use warm lights
- Control the mood and tone to match the event







Sukhothai Legacy



Showcasing Artistic Talent



Boosting Community Economy



Festival Success in Numbers

LIGHT & SOUND SHOW

1

Sukhothai Legacy

This performance aims to preserve Thai culture and the performing arts while promoting the rich history of Sukhothai to both Thai and international tourists. It has been held alongside the Loi Krathong Festival for over 40 years.

2

Showcasing Artistic Talent

The stage serves as a platform to showcase the talents of art students, particularly from the Sukhothai College of Dramatic Arts, which specializes in teaching Thai arts and culture.

3

Boosting Community Economy

The event also creates jobs and distributes income within the local community and to agencies through various services, including performances by around 300 students, chair rentals, shuttle bus services, and equipment rentals.

4

Festival Success in Numbers

Tickets are sold for daily performances over the 10-day festival, and in 2023, approximately 5,000 people attended.





BAN BAN MARKET

1. Fully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while other markets receive government support.
2. Cost: 7,000 THB, with a 1,000 THB deposit in case of unsold items. Other markets charge 4,000 to 6,000 THB with no deposit required.
3. Everyone helps to maintain cleanliness and fully separate waste. Natural materials are used for containers to reduce plastic usage.
4. Store decoration is done by the owners using natural materials, matching the event's theme. Plastic, vinyl, and sticker signs are prohibited. Hand-painted signs are encouraged.
5. Lighting in the store must use soft white light only, no colored or flashing lights are allowed.

FUTURE GOALS

1. **Aiming for Zero Waste:** Striving to eliminate waste by promoting recycling, reusing materials, and reducing overall waste production.
2. **No Plastic Usage:** Completely removing single-use plastics, opting for natural, reusable, or biodegradable alternatives.
3. **BCG (Bio-Circular-Green Economy):** Focusing on sustainable practices by using renewable resources, encouraging material reuse, and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FUTURE GOALS

4. Effective Waste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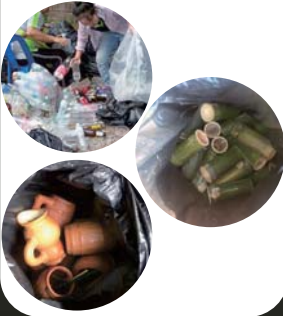
1

**Separate
garbage
within the
event**



2

**Sorting garbage
manually into
categories**



3

CATEGORIES

- Plastic
- Cups/Pots
- Shopsticks
- Food waste





Welcome to
"The Light and Sound Show"

In Sukhothai Loy Krathong and Candle Festival

At Sukhothai Historical Park

During 8th- 15th November 2024 at 7 - 7.45 P.M.

And an extra round at 8.30 P.M.

ONLY on 15th November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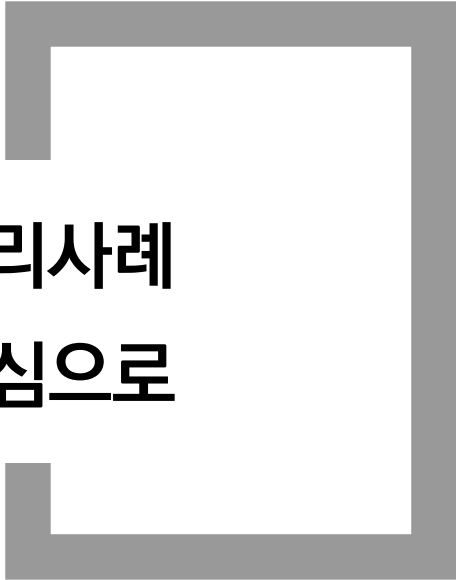
Ticket Available at www.thaiticketmajor.com

For 500, 900, 1,200 Bah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Khun Am : 06-1242-8555 Line ID : @ST2024





습지의 올바른 관리사례 _순천습지를 중심으로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센터)

습지의 올바른 관리사례_순천습지를 중심으로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지금까지 람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도시, 세계자연유산 등의 국제적 인증을 받으며 발전시켜온 순천만의 습지관리 모델을 살펴보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다른 습지들의 관리 모델과 비교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순천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순천만은 람사르협약이 강조하고 있는 최우선적 가치인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구현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성공사례입니다. **왜 손에 꼽히는 성공적 사례인지 현명한 이용을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떤 습지와 비교해도 순천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습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습지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한 “**현명한 이용**”의 사례로는 순천만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인구 30만이 안되는 작은도시에 순천만과 국가정원으로 연간 1천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온다는 것은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중국의 경우 일부 대도시의 경우 도심과 가깝고, 대중교통으로 접근가능한 위치에 있는 습지들은 연간 수백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천만명 이상의 큰 도시들에서 도시의 시민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는 분명 순천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중국 옌청에서 개최된 옌청국제습지심포지엄에 초대되어 순천만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에 옌청의 시장님과 고위 공무원 30여명이 순천만을 방문하였습니다. 옌청에서의 짧은 발표가 아닌 순천만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설명을 전하였고, 이후 모두가 운동화로 바뀌시고 용산전망대까지 걸으며 순천의 사례를 옌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옌청시는 인구 800만 이상의 대도시이며, 순천만보다 먼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연안습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자원만을 비교한다면 면적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순천만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단 한 가지 순천만을 모델로 삼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명쾌하게 어떤 요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니 이러한 요소들을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이디어와 관리행위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수많은 결정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에 지금과 같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순천만에 적용했던 모든 관리활동을 정확히 다른 곳에 적용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까

요? 그럼 순천만을 지금까지 관리해 온 순천시에서 순천의 다른 부분을 순천만처럼 만들겠다고 한다면 같은 과정에서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에 순천만의 성과가 더욱 귀한 것이고, 전 세계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순천만의 스토리를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 아마도 전 세계적인 습지와 습지의 현명한 이용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순천만의 현명한 이용이 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전”과 “이용”은 극과극에서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전은 “이용”을 극도로 제한하여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개념이고, “이용”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보전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습지의 자원을 여러 용도로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습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에서 충돌합니다. 성공적 관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피해야 하는 선택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야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순천만의 모습이 적정선에서 아주 좋은 균형을 찾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또 다른 시도를 하며 새로운 환경에 더 적합한 최적의 균형을 찾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보전과 이용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앞서 순천만이 란사르협약에서 이야기하는 현명한 이용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했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현명한 이용**이라 하면 뭐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함에 대한 방법과 정도는 정확히 정의된 것이 없을까? 모두 각자의 기준에서 현명하게 습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현명한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이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란사르협약은 왜 이렇게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란사르협약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습지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생태적 특성의 보전**을 한계선으로 두고 “이용”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복적인 이용이 습지의 중요한 생태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습지의 환경적 수용능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양끝에 있는 보전과 이용 사이에서 보전에 무게를 둔 지속가능한 밸런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란사르협약에서 제시한 지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는 습지에서 생태적 특성의 유지가 세계자연유산에서 이야기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치로 보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천만은 또 다른 시각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보전” 입장에서는 “현명한 이용”은 타협점으로서 한 발 물러선 결정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이용”을 적용하고 보니 “이용”은 더욱 강력한 “보전”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명한 이용이라는 타협점에서 일어나는 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인식하는 습지는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또 순천만입니다. 습지를 가치있는 땅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시기 순천만은 쓰레기를 몰래 가져다 버리는 곳이었고, 순천만은 그냥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런 순천만은 골채채취 허가라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 위기는 순천시민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순천만은 온전히 보전의 대상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전에 관한 결정이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정이고 이는 결정권자의 생각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천만은 “현명한 이용”으로 생태적 특성을 지키며 순천만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며 연간 수백만명이 찾는 생태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순천만을 찾는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은 순천만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치있는 순천만은 누구도 훼손이나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현명한 이용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순천만 습지는 어떻게 관리되어왔고, 어떠한 부분이 지금의 순천만을 만들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천만의 **관리적 부분**을 살펴보면, 탁월한 선택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로 순천만에 대한 골채채취 사업이 시민들의 반대로 취소된 이후, 순천시가 민간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순천만 관리전반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람사르습지를 비롯한 모든 보호지역 관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입니다. 해당 습지에 대한 관리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습지에 생계를 의존하거나 습지주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반드시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백퍼센트를 갖추고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설립이 전체적인 습지의 관리라는 절차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라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순천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회성의 자문같은 경우 전문가나 민간, 학계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반영되는 비율이 높지 못합니다. 결론을 정해두고 자문을 받았다는 행정적 절차를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경우 자문의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유연한 개방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순천만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관리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전에 관한 방향설정과 이행**입니다. 흑두루미를 모든 보전계획의 중심에 두고 철새들의 서식공간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먹이터와 쉼터를 확보하였고, 관광객 이외의 외부교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순천만에 오래전에 근무하셨던 공무원분들과 이야기 나누어보면 가장 많은 스토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순천만 내에 존재하던 식당들과 오리농장을 외부로 이전하기 위해 이를 운영하던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또한 순천만 인근의 농경지에서 수백개의 전봇대를 제거하였습니다. 순천만 내부가 아니라 주변이긴 하지만 습지의 관리, 복원에는 때때로 용기있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 더욱 필요한 서식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이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순천만을 찾지 않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은 개체수이지만 지속적으로 순천만을 찾다면, 그리고 이 조류종은 순천만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는 서식조건을 선호한다면 기존의 공간을 새로운 조류를 위한 공간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성과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 용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순천만을 흑두루미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관리행위들은 매우 용기있는 결단이었고, 순천만이 생태관광지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흑두루미 영농단** 운영과 습지의 관리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흑두루미에게 안전한 먹이를 주기 위해 순천만 인근의 농가들과 쌀을 무농약으로 계약재배하고 이를 전량 구매하여 절반은 흑두루미 먹이로 나머지는 친환경쌀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에게 안전한 먹이를 제공한 것은 이후 더 많은 개체들이 순천만을 찾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흑두루미 먹이주기, 먹이활동을 편하게 하도록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갈대펜스 제작 및 설치 등 다양한 관리활동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부가적 수입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순천만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관리되었지만 이러한 결정을 했을 당시의 순천시는 타지자체들과는 차별되는 유연한 사고와 판단이 있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순천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입니다. 순천만 보전을 중심으로 공간계획을 하였고, 이어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원박람회를 기획하였고, 지금의 순천만국가정원으로 또 하나의 순천시의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지역인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철저히 배제하였고, 이를 전이지역 그리고 도심공간으로 향하도록 하여 순천만의 보전이 도시의 공간계획에 포함되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현재 랍사르협약에서 랍사르협약 우수 이행 도시들에 주는 습지도시 인증제의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도시의 공간계획과 습지 또는 다른 보호지역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체계적 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상에서 보전공간으로 명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원박람회, 정원도시 등 더 많은 차별화 된 요소들이 있지만 순천만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들로만 정리하고, 다음 차례로 현재의 순천만 관리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순천만이 되기 위한 더 큰 한 걸음으로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습지들과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그리고 국내 최고의 연안습지로서의 명성을 쌓아온 지난 20여년간의 **순천만의 관리가 과학적, 체계적인 관리였는가**입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순천만의 관리는 다른 국내 여러 습지의 관리와 다르지 않게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여러 단계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습지관리이기 보다는 독립된 사업위주의 관리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학적 습지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나 인식증진에 관한 단계들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습지에 대해 관찰하고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 이 단계에서 수집되고 기록된 현황에 관한 정보들이 향후 관리활동들이 진행되며 발생하는 변화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에는 수질/수위/수온 등 물과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특성, 조류 종과 개체수, 저서생물,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생 생태적 특성 등 다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초기 단계의 모니터링은 현재 습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모니터링입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은 습지의 상태 변화의 경향성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지금 하고있는 관리행위가 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정적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첫 모니터링이 완료되고 관리대상습지의 현재 상태가 파악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관리계획은 여러 가지 관리행위들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습지를 어떤 상태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을 계획합니다. 주로 관리대상이 되는 습지의 구획을 나누고 각 구획별로 목표가 되는 종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공간을 조성하거나, 오염, 외래종 등 생태계 건강성에 발생한 문제점들의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물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비, 그리고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관리계획을 통해 대상습지에 필요한 향후 3년 또는 5년간의 활동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시간적으로 나뉘어 매일 해야 하는 활동, 일주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 등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 집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함께 기입됩니다. 이러한 관리계획에 하에 일련의 관리활동 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활동들에는 결과가 수반되고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의 관리활동이 적절한 것인지 빈도, 강도 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지, 새로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의 판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상 강조되지만 모니터링은 관리활동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리활동의 결과 파악, 변화의 흐름, 새로운 종의 출현 또는 개체수의 증감, 외래종의 관리를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으로 생성된 자료, 관리활동중에 기록된 자료 등으로 연 단위 관리계획의 평가 및 수정이 있게 됩니다. 최종 3년 또는 5년의 관리계획 기간이 종료되면 처음 세웠던 관리목표의 성취에 관한 검토, 서식처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적 계획 또는 기존 계획의 수정 등이 논의되고, 다음 3년 또는 5년 주기의 관리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적응형 습지관리의 모델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계획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적응형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WWT가 관리하는 습지들, 홍콩의 마이포 습지, 대만의 관두습지, 싱가포르 송게이블로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들의 관리는 모두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 기능, 생태계 서비스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순천의 관리는 과학적, 체계적 관리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서상 가장 먼저이니 **모니터링**을 한 번 보면, 순천만에서의 모니터링은 순천만 보전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류 모니터링,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서 진행되는 해양생태계 관련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아마도 식생에 대한 모니터링, 저서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생태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또한 국립생태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천만의 생태계 전반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습지의 관리에서 가장 크게 어긋나게 되는 시점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이 시기입니다. 순천만도 지금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관리계획이 용

역으로 외부로 발주됩니다. 행정기관에는 기존에 진행해왔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관리계획 수립을 주도할만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용역기관은 대부분 해당습지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용역계약 후에 시기별로 해당습지를 방문하여 면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계약기간도 1년 이내이고, 용역비용 또한 이러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당습지의 상태와는 별개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를 기존에 나와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상속 관리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습지의 생태적 건강성이나 서식처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구획화나 서식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편의시설이나 구조물의 설치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천만은 분명히 앞서있는 습지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아직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느 습지도 이러한 습지관리 체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에서 첫 사례를 한 번 만들어 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전 세계적 추세이고, **환경적 변화에도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궁극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계획 수립 이후의 과정은 계획의 이행이고, 이후의 관찰, 평가, 계획의 수정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후의 과정의 이행은 외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전체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습지관리 전 단계를 이행하고 단위 이행주체들을 조율/관리하고, 단계별 평가 이행, 계획의 업데이트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습지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인 **전문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순천만은 많은 변화를 거쳐 국내 최고의 습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에 전문성을 갖춘 습지전문가, 또는 습지에 대한 전문성이 남아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홍콩의 마이포습지는 WWF 홍콩이라는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WWF 홍콩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습지 관리에 관한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지역 도시단위로 습지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WWF 홍콩과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홍콩 마이포에는 50년 이상 습지를 관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만은 어떨까요?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20년이 더 지나면 그런 전문성이 쌓일까요? 어떤 지금과는 다른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년 후도 지금과 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보직으로 언젠가 습지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구성원들로 습지를 관리하는 부서 전체가 꾸러진다면 이전까지 쌓아온 자료들은 남아있겠지만 그 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다른 도시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20년이 더 지난 시점에도 습지전문가를 찾아다녀야 할 것

입니다. 순천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랍사르습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봐야 할 문제는 이러한 **전문성의 부재**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홍콩 마이포 습지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이 곳에 정답으로 삼을 만한 해법이 있기에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홍콩의 마이포도 여전히 습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이행하는 주체를 WWF 홍콩**으로 선정하여 **장기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습지관리부서가 모니터링, 관리계획 수립, 이행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관리부서에 속한 습지관리자들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서 **습지관리의 실질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합니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전문성으로 마이포에** 남게 되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가 제10차 랍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즈음 또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마이포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습지였고, 정말 습지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찾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돌아왔을까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물론 좋은 시설물, 구조물에 대한 아이디어,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서식공간을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생물종들에게 좋은 서식공간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마이포의 고민은 담아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도 마이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으로 순천만 습지의 위탁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만났던 거의 모든 분들께 수년간 드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이를 구현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들 정답을 앞에 두고 눈앞의 실적만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였다”, “있다” 등 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고, 모니터링은 무엇을 위해 어떤 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습지를 찾는 방문객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앞으로 습지를 더욱 사랑하고 지켜 줄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는 등의 질적 평가는 없이 “했다”라는 양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순천만의 전문성을 위하여** 조언드리자면 필요한 관리전반의 과정을 맡아 수행할 **지역의 민간기관과 장기적 관리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행착오는 순천만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순천만의 또다른 전문성이라는 자산을 찾아 순천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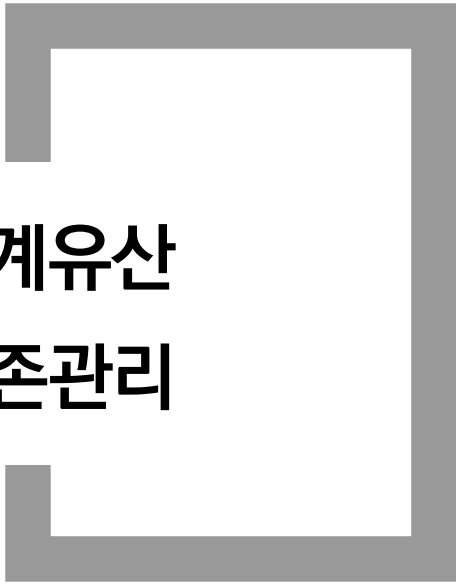
순천만을 장기적으로 위탁할 **전문기관은 순천의 또다른 역량**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랍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순천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공사례만** 우리나라

라에서 나올 수 있다면, 전국의 모든 습지들이 전문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사례가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련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을 갖추어 온 순천의 전문기관은 **전국의 습지를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습지관리를 배우기 위한 전공자들은 순천을 찾을 것이고, 전문기관이 **습지관리의 사관학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습지관리 형태보다 큰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화되어 소모되는 관리계획의 수립이나 외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만약 해낼 수 있다면 순천만이 마이포나 승계이블로, 영국의 슬럼브리지, 런던습지처럼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져 언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국제적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천만이 빛나는 별이 되어 더 많은 곳에서 언급될 수 있다면 순천은 작은 도시이지만 습지 분야에서는 서울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기술한 내용들은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이야기해 온 것들입니다. 단지 이것을 이행할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꿈만 꾸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순천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계자연유산 순천만을 가진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순천만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자부심,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옆에 있는 순천만을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알려진 순천만의 모습이 아닌 다른 계절, 다른 시간, 다른 위치의 순천만이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많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문경오

(전. 한국의 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전관리

문 경 오

(세계유산위원회 한국대표단 자연유산분야 기술자문
/ 前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경과와 이슈
- III.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
- IV.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방향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세계유산이란 인종, 문화, 종교,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류의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만큼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유산은 이러한 탁월함을 이유로 자연분야에서 국제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유네스코 프로그램들 가운데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며,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다.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신규 등재된 24건(문화 19건, 자연 4건, 복합 1건)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는 총 1,223건의 세계유산(문화 952건, 자연 231건, 복합 40건)이 분포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제18차 세계유산위원회(1994년)에서 글로벌전략 채택, 제29차 세계유산위원회(2005년)에서 운영지침 전면 개정을 통한 등재기준 개편,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2007년)에서 국가별 최대 2건(문화 1건, 자연 1건) 제출 제한 등 제도 변화를 통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유사한 속성을 지닌 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특성 상, 비교 분석을 통해 탁월성과 국제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문화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에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면적을 갖고 있기에 자연자원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는 비교우위 입증과 자연자원의 한계성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본 발표를 통해 등재과정의 어려움을 되짚어 보면서 등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향후 세계유산 관리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경과와 이슈

1. 등재추진 경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등재는 최초 논의에서 등재까지 20여 년이 걸린 긴 여정이었다. 이러한 대장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2000년대는 계획기로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기였다.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어 갯벌과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갯벌의 차별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요건 중 보호관리요건 충족을 위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람사르 포함),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전북 고창, 부안, 전남 무안, 신안, 보성, 순천이 참여의사를 전달하였다. 전남도에서 주도하여 이러한 대상지역을 기초로 잠정목록 신청서¹⁾를 작성하여 당시 문화재청에 제출되었고, 2010년 1월 11일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2011년~2014년까지의 준비기이다. 2010년 말, 전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향후 등재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연도별 추진 사업을 포함한 중기 계획과 등재추진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방향성 등이 제시되었다. ‘서남해안 갯벌’은 기본 계획 수립과정 중인 2011년 2월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2011년 9월 순천에서 진행된 “IUCN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보호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IUCN 세계유산 주요관계자들이 순천만과 신안 증도의 갯벌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이때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등재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IUCN 워크숍 현장답사(2011.09.26.)]

1) 잠정목록 신청당시 명칭은 ‘서남해안 갯벌’이었으며, 등재기준은 ‘(vii) 심미적 경관, (viii) 지형지질학적 가치, (ix) 생물생태학적 과정’이었다.

이를 토대로 2012년에는 전문가 및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세계유산 등재추진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었다. 포럼을 통해 잠정목록 상의 등재기준 적합성, 200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와덴해 갯벌과의 비교우위 입증 가능성 등을 검증하였고, 현장답사를 통해 완전성 충족을 위한 적절한 크기, 위협요인 확인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준비위원회 운영을 통해 등재기준은 (viii) 지형지질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추가 기술하는 것과 완전성 입증을 위해 생태학적 만(灣) 단위로의 추진, 민관협력의 등재추진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이 제안되었다.



[준비위원회 활동: 순천 현장답사(2012.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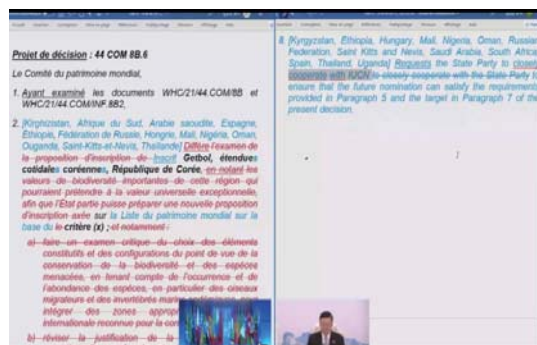
이 결과를 기초로 2013년 5월 문화재청,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서천군, 고창군, 부안군,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의 12개 기관이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2013년도 6월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문화재청 주관의 실무자회의에서 고흥군의 참여 철회가 통보되었고, 이어서 여수시와 부안군도 참여 철회를 문화재청에 통보(2013.08.21.)하였다.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양한 갯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충남 서천과 전남 신안 지역을 우선 등재추진하고 곰소만과 여자만은 주민 설득을 통한 전체 지역 참여를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²⁾

세 번째는 이행기(2014~2020)로서, 등재 전담기구인 추진단을 설립하고 신청서 작

2) 2013년도 제2차 세계유산분과위원회(2013.08.27.) 회의록 (국가유산청 >회의록공개 상세 >2013년 제2차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khs.go.kr)

성을 위한 분야별 연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사업, 국제협력 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참석, 보호지역 확대를 통한 보호관리체계 수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등재추진 사업이 이행되는 시기이다. 순천시의 참여는 2015년도 제3차 세계유산분과위원회(2015.12.23.)에서 결정되었는데, 2013년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후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등재 참여의사를 추진단에 전달하였으며, 추진단은 2014년 10월, 2015년 5월 국제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보성-순천 지역은 면적은 작으나 여자만 내의 주요 지형지질학적 특성, 생물생태학적 우수성을 대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이를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세계유산 등재의 기초가 된다는 모범사례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마지막 시기는 완성기(2021년)로서,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진 시기이다. 2021년 5월 세계유산위원회 자연유산분야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반려(Deferral)를 권고하였다.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한양도성, 산사 등의 전례대로라면 신청서 제출을 철회하여야 하였으나, 등재기준 (x) 부합성과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문화재청은 상향결정을 위한 등재지지도교섭을 결정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가운데 11개국과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위원국에도 등재기준 부합성, IUCN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된 별도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마침내 2021년 7월 26일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의결하였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의결(2021.07.26.)]

2. 등재추진 과정에서의 이슈와 대응노력

추진단 설립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도전과제가 산적해 있었으며, 이 행기는 이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이었다. 주요한 도전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신청서 작성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와 바닷새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환경부에서는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등 국가 단위의 조사가 시행되고 있었다. 국가단위의 조사는 국가 전체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자료였으며, 조사 정점의 간격이 커서 등재기준 (viii)의

부합성 입증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생물다양성에 대한 자료로서도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대상지역들은 내륙에서 떨어져 있어 국가 자료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사업으로 대상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갯벌 지형지질 연구는 갯벌서식지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섬 지역에서의 퇴적양상과 퇴적물 연구, 계절변화 연구 등 다도해 섬갯벌로서의 차별성 강조에 중점을 둔 연구가 시행되었다. 또한 전 세계 다른 갯벌 지역과는 달리 어업활동이 활발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어업활동이 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정밀연구도 실시하였다. 생물종 다양성 연구는 갯벌 서식지별 생물상에 대한 연구를 중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생산성, 해조류,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의 생물종 목록을 작성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보호 및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모델을 제시하고 등재 후 관리체계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였다. 문화다양성 연구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토착지식 기반의 어업활동과 어구어법, 토착신앙을 포함하여 섬마다 특색을 갖고 있는 갯살림 문화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사업의 시행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입증에 위한 과학적 자료를 집적할 수 있었고, 해당 자료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에 공유하여 국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추진					
		14	15	16	17	18	19
갯벌 지형 지질 연구 (동계기준 8 /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 지형지질 자료 생성 : 퇴적양상 파악, 퇴적물 연구, 계절변화 연구 국제비교연구 : 300km 이상의 전세계 갯벌 비교연구 및 비교우위 입증 주민어업영향활동 연구 : 어업지역 및 비어업지역 비교를 통한 지질 및 생물종 무영향 입증 						
생물종 다양성 연구 (동계기준 9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 퇴적 유형별 생물상 자료 생성 : 저서생물, 규조류, 염생식물, 절세 갯벌 서식지 분류 및 보호종과 자원종 명세 목록 작성 국제비교연구 : 갯벌의 생산성 및 종 다양성 비교연구 및 비교우위 입증 						
보호 및 관리 (원전성 및 진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문화재 지정 : 보호 체계 확립 주민공동체 조직 및 운영지원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핵심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관리모델개발 : 보존에 기초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리모델 개발 						

[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현황(2014~2017)]

두 번째 도전과제는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 완전성 충족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지정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기존 국내의 세계유산은 대부분이 문화유산이었고, 유일한 자연유산이었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차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세계유산은 모두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법)을 보호관리체계의 기본법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의 갯벌 또한 2014년 당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기초로 경계설정 등을 고려하였으나, 갯벌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었기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다. 2015년 법률 상에서 지역주민들

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습지보전법의 적용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문화재청,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7년 습지보전법을 보호관리체계의 기본법으로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사례였다.

세계유산 등재에 참여하는 5개 시군은 순천시를 제외하고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보호지역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갯벌 서식지와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갯벌지역과 갯벌 지역 형성에 기여하는 조수로를 모두 포괄하는 지역으로의 보호지역 확대와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습지보호지역 확대는 지역주민 이해증진 사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5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하여 읍면단위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어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어촌계와도 지속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을단위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소 연 1회 매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면담을 포함하면 100회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호지역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를 설명하였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추진에 있어 사업의 방향성과 세부 추진 사업을 1차 결정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총 25명 중 기초단체별 지역주민 대표 각 1명, 총 5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등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등재 추진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 등 지역주민 참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듯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보호지역의 경계가 확정되었으며, 2018년 9월 대규모 습지보호지역 확대가 이루어졌다. 확대면적은 1,185.84㎢로 전체 갯벌 면적(2,487.2㎢)의 47.7%에 해당하며, 확대된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유산지역 면적은 총 1,284.11㎢로 2018년 당시 전체 습지보호지역(1,421.85㎢)의 90%에 해당했다.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된 연안습지보호지역(235.81㎢)의 5배에 이르는 보호지역이 지정된 사례로 국내 갯벌 면적을 고려할 때 전무후무한 성과이다.



[보호체계 및 완전성 요건 충족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확대]

세 번째 도전과제는 갯벌에 대한 국제 인지도와 이해도가 미흡했다는 것이었다. 등재초기인 2013년 당시 해양관련 세계유산은 46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으며, 특히 연안의 경우는 와덴해 세계유산이 유일할 정도로 국제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황해의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준비위원회 운영 시기인 2012년 제주와 2016년 하와이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보전총회(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서 BirdLife International,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 파트너십과 협력하여 결의문을 이끌어 냈다. 또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와 중요 국제행사 참석하여 세계유산 등재 당위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와덴해공동사무국, 국제지질학연합, 세계퇴적학회, BirdLife International, 영국왕립조류협회, Wetland International, 랍사르 사무국,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 IUCN 아시아 사무소,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 파트너십, 동아시아 랍사르지역센터, 한스-자이델재단 등 수많은 중요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국제 저명 세계유산 및 갯벌 생물생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자문단을 발족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등재상향을 위한 위원국 지지교섭단계에서 78개의 중요 국제기관이 서명한 등재지지서한이 세계유산위원국에 발송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추진단 운영, 홍보영상 및 다큐제작, 리플렛, 브로슈어 제작 등 홍보사업, 디지털 아카이빙 개발 및 운영 등을 포함한 학술지원사업도 등재과정에서 시행되었다.

Ⅲ.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

1. 탁월한 보편적 가치³⁾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중요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의결하였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은 매년 계절에 따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철새들의 병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15,000km 이상의 이동경로에서 유일한 중간기착지로서 역할하고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에서는 총137종의 물새가 관찰되며, EAAF의 전체 물새 250종 중 101종(40.4%), 도요물떼새류 63종 중 47종(74.6%)를 부양하고 있어 국제적 중요성이 탁월하다. 특히, 전 세계 생존개체수가 400~600개체로 알려진 IUCN 멸종위급종(CR)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하여,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붉은어깨도요(이상 멸종위기종, EN), 흑두루미, 검은

3)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신청서(Getbol, Korean Tidal Flats - Documents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및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의결문(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Decision - 44 COM 8B.6)

머리갈매기, 노랑부리백로(이상 취약종, VU) 등을 포함하여 총 27종의 국제 위협종이 관찰 된다.

또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은 갯게, 붉은발말뚝게, 흰발농게, 대추귀고등과 같은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과 황해 고유종인 범게를 포함한 47종의 고유종을 부양하고 있어 저서생태계의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에게도 중요한 서식처로서 역할하고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지역은 펄, 모래, 혼합갯벌, 염습지와 같은 일반적인 갯벌 서식처를 뛰어 넘어 암반서식지, 사취, 사구, 해변, 특이퇴적체와 같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갯벌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갯벌 서식지는 높은 생물다양성의 원인이 된다. 유산지역에는 저서규조류 375종, 해조류 152종, 대형저서동물 857, 염생식물 55종, 어류 54종, 물새 137종 등 총 2,169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 강우시기에 금강을 통해 풍부한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갯벌 퇴적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생산량(215.7mg/m²)을 보이며, 저서규조류, 해조류, 대형저서동물의 종다양성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퇴적물은 이처럼 예외적으로 다양한 서식지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서식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의 위협종을 포함한 가장 높은 물새종 다양성과 갯벌 위와 내부에서 서식하는 갯벌 생물종들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부양한다.

2. 속성과 연속유산 구성요소별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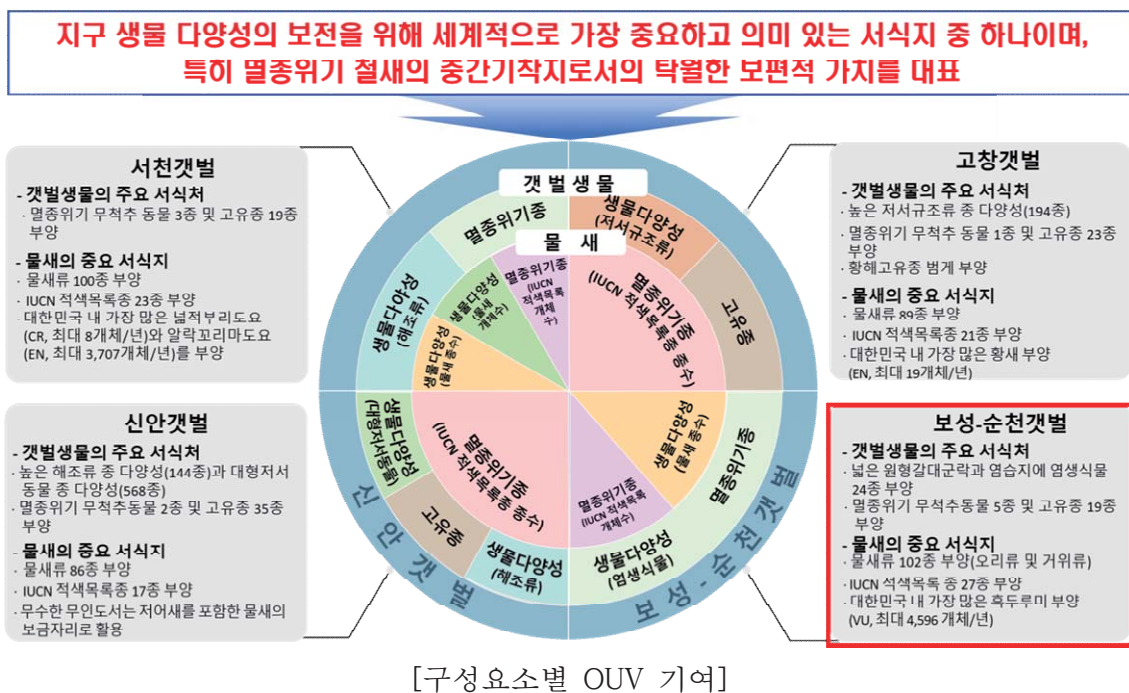
속성(attribute)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지속시키는 요소이다. 속성은 각각의 구성요소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증명하고 설명해야만 한다. 그것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세계유산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 정기점검, 유산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속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속성 (attributes)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갯벌생물의 주요 서식처 「한국의 갯벌」은 섬, 암반해안, 해변, 모래갯벌, 필갯벌, 염습지를 포함한 서식처 다양성을 반영하여, 약 2,169종의 생물들을 부양하고 있음. 또한 황해 고유종 47종과 멸종위기 해양 무척추동물 5종의 서식지를 포괄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해조류)	생물다양성 (저서규조류)	생물다양성 (대형저서동물)	생물다양성 (염생식물)
	멸종위기종	고유종	고유종 생물다양성 (해조류)	멸종위기종
물새의 중요 서식지 「한국의 갯벌」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요 물새 서식지로 IUCN 적색목록 27종을 포함한 137종의 물새를 부양함	생물다양성 (물새종수)	멸종위기종 (IUCN 적색목록종 중수)	멸종위기종 (IUCN 적색목록종 중수)	멸종위기종 (IUCN 적색목록 개체수)
	생물다양성 (물새개체수)			생물다양성 (물새종수)
	멸종위기종 (IUCN 적색목록 개체수)			

[구성요소별 속성]

한국의 갯벌이 갖고 있는 등재기준 (x)에 대한 속성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물새의 중요서식지로서의 속성이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 중요 중간기착지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물새 서식지로 IUCN 적색목록종 27종을 포함하여 총 137종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다. 둘째는 갯벌 생물의 주요 서식처로서의 속성이다. 한국의 갯벌은 섬, 암반해안, 해변, 모래갯벌, 펄갯벌, 염습지를 포함한 서식처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약 2,169종의 생물들을 부양하고 있다. 또한 황해 고유종 47종과 멸종위기 해양 무척추동물 5종의 서식지를 포괄하고 있다.

연속유산은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둘 이상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이것은 단일 국가 내이나 복수의 국가에 걸쳐 있을 수 있다. 구성요소는 경관, 생태, 진화론적(서식지의 연결성) 연결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 사회 또는 기능적 연계를 반영해야 한다⁴⁾. 각각의 구성요소는 전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은 4개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구성요소별로 각기 다른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순천갯벌은 갯벌생물의 주요 서식처 속성에서, 넓게 발달된 염습지를 포함하고 있어 원형갈대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고, 24종의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 무척추 동물 5종과 고유종 19종을 부양하고 있어 염생식물의 종다양성 측면과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측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물새의 중요 서식지 속성에서는 연간 5천여 개체의 흑두루미의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하며,

4)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37항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수의 부양비율 또한 매우 높아 국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저어새 등 IUCN 적색목록 중 27종을 포함하여 총 102종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어 멸종위기 물새의 중요 서식처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

IV.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보전관리 방향

1. 보전관리의 중요성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와 함께 현재의 상태를 온전히 인류 미래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왕관의 무게 즉, 전 인류를 위한 책임감이 수반된다. 세계유산제도의 시행에 있어 2007년 ‘세계유산 전략목표’ 설정이후 등재와 함께 보전관리의 중요성 또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⁵⁾. 등재이후 보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수 십건의 보전상태(State of Conservation, SOC) 보고서가 세계유산 위원회에 보고되고 심의를 거쳐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와 함께 심지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기도 한다.

전 세계 1,223건의 세계유산 가운데 위험에 처한 유산은 56건이며, 삭제된 유산은 3건이다. 위험에 처한 유산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등재이후 개발로 인한 위험 증가가 가장 크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훼손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유산의 보전상태를 다루는 의제에서는 124건(위험에 처한 유산 57건⁶⁾, 유산의 보전상태 보고서 67건⁷⁾의 보고 및 토의가 이루어진 후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위험에 처한 유산의 지역별 분포⁸⁾]

지역	문화	자연	복합	계	비율
아프리카	3	10	0	13	23%
아랍 에미레이트	24	0	0	24	43%
아시아-태평양	4	2	0	6	11%
유럽-북아메리카	6	1	0	7	13%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4	2	0	6	11%
합계	41	15	0	56	100%

삭제된 유산은 3건이 있는데 모두 개발로 인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경우이다.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등재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훼손을 여러 차

5) 문경오 외, 2020, 국제보호지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6) 46 COM, WHC/24/46.COM/7A

7) 46 COM, WHC/24/46.COM/7B

8)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통계(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World Heritage Lis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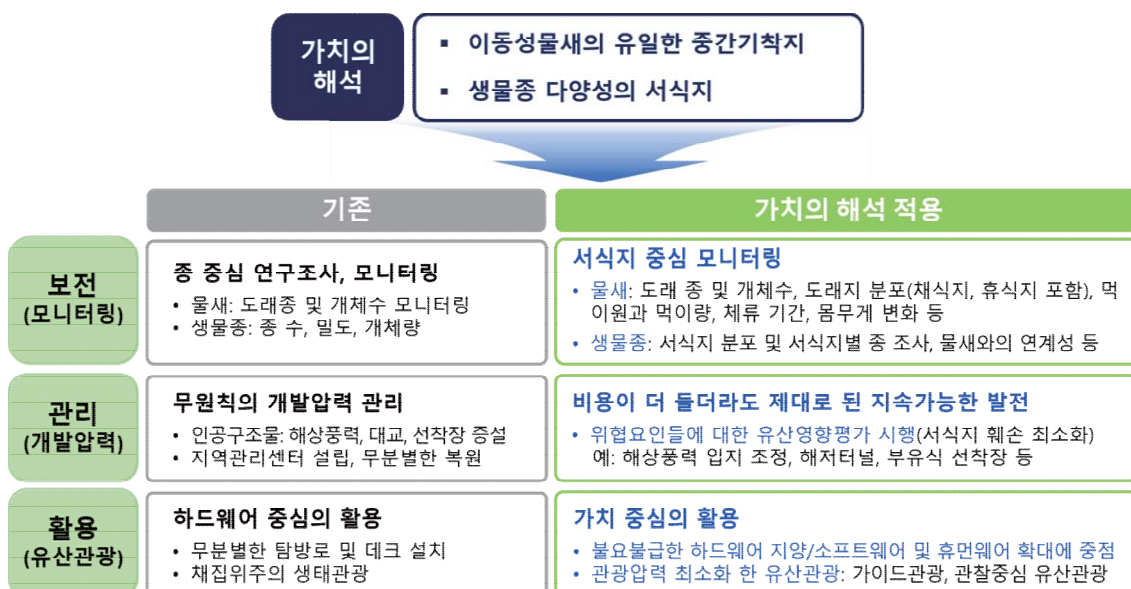
레 경고 받았으나, 당사국들은 전체 유산의 일부만 변형되는 것이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 최종 삭제 결정되었다.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유산 현황]

유산명	국가	등재년	삭제년	삭제이유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	오만	1994	2007	석유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드레스덴 엘베 계곡	독일	2004	2009	다리건설로 인한 OUV 훼손
리버풀-해양상업도시	영국	2004	2021	축구장확대로 인한 OUV 훼손

2. 보전관리의 방향: 속성 중심의 보전관리와 유산영향평가(HIA)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 방법은 자연기반 관리(Natural-based Management), 지역주민기반 관리(Community-based Management), 지속가능성기반 관리(Sustainability-based Management) 등 다양하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모든 방법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성하는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우리나라에 건립된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는 세계유산의 가치의 해석과 설명에 기초한 유산의 유지와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속성 중심의 보전관리는 매우 필수적이며, 최신의 경향과도 부합된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가치해석과 설명에 기초한 속성관리를 적용해보면 기존의 보전, 관리, 활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산출된다.



[속성의 가치와 해석이 적용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관리방향]

세계유산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또 다른 최근 이슈는 유산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시행이다.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HIA)는 잠재적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세계유산구역과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가유산청은 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유산법의 개정 및 시행령 마련을 통해 유산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24년 11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유산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는 잠재적인 개발계획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며, 추가적인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결정에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세계유산구역별 상호의존관계]

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은 OUV를 전달하는 유무형의 속성, 완전성과 진정성, 유산의 맥락(시각영향 포함), 기타 유산의 가치(국가 또는 지역단위) 등이다. 세계유산은 제시된 속성을 모두 포함하여 유산의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때 유산의 경계는 속성으로 제시한 대상 및 범위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유산구역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범위로 완충구역이 필요하다. 완충구역의 역할과 기능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속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 없는 지역이 경계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속성이나 특징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22년 세계유산 영향평가 지침서(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가 개정되면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외에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거나 연관된 범위를 주변 환경(Wider Setting)으로 정의하였다. 주변환경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한 부분 이거나 필수적인 부분 이라면 이는 유산구역의 일부이거나 경관처럼 광범위한 경우는 완충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환경도 유산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필요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V. 순천갯벌의 보전관리 제언

순천갯벌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가운데 유일하게 시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한다. 순천만 갯벌의 보전을 위한 순천의 오랜 기간 노력은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수립된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있는 점은 세계유산 현장실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순천갯벌의 안정적인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전관리에 대한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야	항목	주요 내용
보전	통합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세 현장조사 강화(시민모니터링 병행을 통한 시민과학자 양성)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실시
	복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근거와 분석에 기초한 갯벌 복원 사업 시행
	위협요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어구 수거 / 관행어업 근절 ■ 오염원 유입 관리
활용	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술을 활용한 미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유산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 ■ 브랜드 활용 강화
	해양생태공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공원 사업(전남도 1단계)
관리	관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리센터 건립 및 관리조직 강화 ■ 세계유산관리협의체 강화 ■ 지역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증진(폐어구 수거, 친환경 어구사용) -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주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생태계서비스 제도: 물세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휴식년제 지원 ■ 갯벌생태해설사 제도: 유산관광
기타	국내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갯벌 세계유산 도시와의 자매결연(와덴해, 중국)을 통한 협력 증진 및 국제행사 유치 ■ 국내: 여자만 내 주변 지역과의 협력 주도(1,2단계)

VI. 나가는 말

세계유산은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도 등재를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세계유산 등재과정은 ‘불확실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세계유산 등재라는 타이틀은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국제적 기준과 평가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세계유산이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인류의 미래세대를 위해 전달해야 하는 전 인류적 사명감과 함께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참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얻은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왕관을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현재

김정은
(컬처 & 헤리티지)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세계유산 등재와 현재

- 자문기구와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컬처&헤리티지

김정은

목차

1. 산사의 개요
2.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
3. 자문기구의 질의 및 권고사항
4.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과 권고사항
5. 산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1. 산사의 개요

연속유산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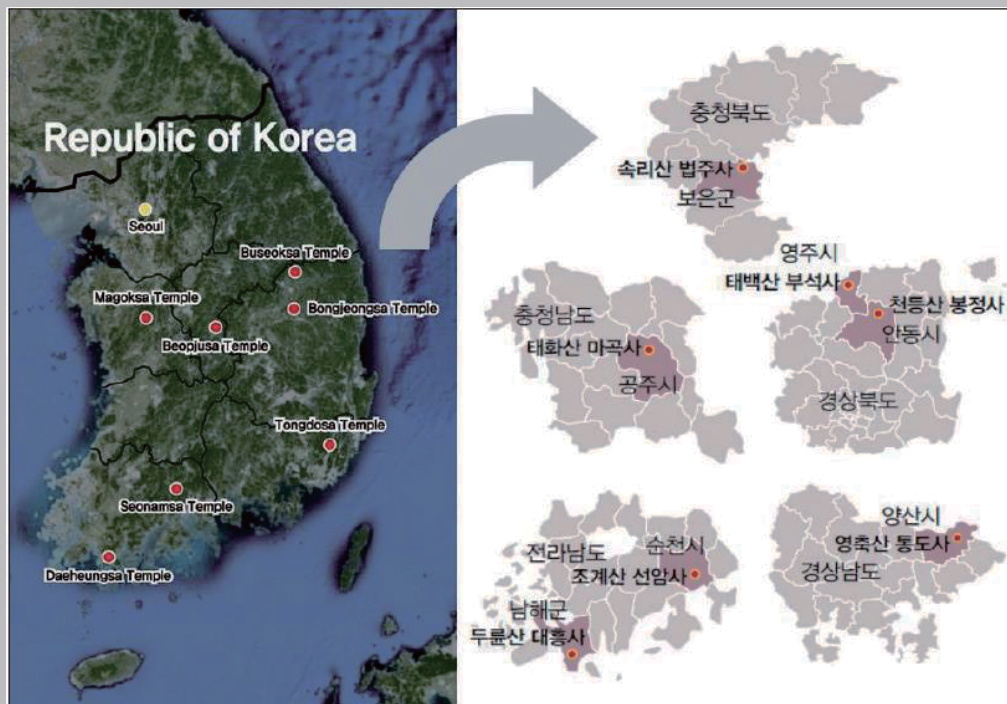
1. 통도사
2. 부석사
3. 봉정사
4. 법주사
5. 마곡사
6. 선암사
7. 대흥사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산사의 위치



산사의 OUV - 등재기준

등재기준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산사의 등재기준

기준 (iii):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오늘날까지 불교 출가자와 신자의 수행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승원이다.

불교의 종교적 가치가 구현된 공간구성의 진정성을 보존하며 지속적으로 승가공동체의 종교 활동이 이어져 온 성역으로서 특출한 증거이다.

구성요소의 산사 OUV에 대한 기여



1. 통도사

금강계단을 통해 한국불교 도입기의 스투파신앙



2. 부석사

삼국 통일기 불교가 중앙집권 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기에 창건
화엄 교리가 건축에 반영



3. 봉정사

임진왜란과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아 사찰의 원형과 한국 최고의 목조건축물 현존.
조선시대 억불정책 하에 성리학자들과의 문화 교류와 자급자족적 경제활동을 통해 승원을 유지하였던 역사적 기록물들을 보유.



4. 법주사

억불정책에도 밀접했던 조선 왕실과 불교계의 관계 유지



5. 마곡사

임진왜란 당시 승병활동의 중심으로 호국불교의 핵심 사찰. 한국 고유의 화승 공동체가 활동하던 사찰이며 불모 추모 의례가 계승.



6. 선암사

전통적인 산지 승원의 생활적인 면모가 가장 잘 남아있는 중요한 사찰. 승가교육의 근대화 견인



7. 대흥사

전쟁에 공을 세운 스님들을 기리는 한국 불교의 호국적인 특성. 억불정책 하에 위기를 맞았던 한국 불교가 전쟁을 기점으로 교세를 회복하게 되었던 과정을 증명

산사의 OUV : 한국 불교 특유의 무형적 요소들

예경,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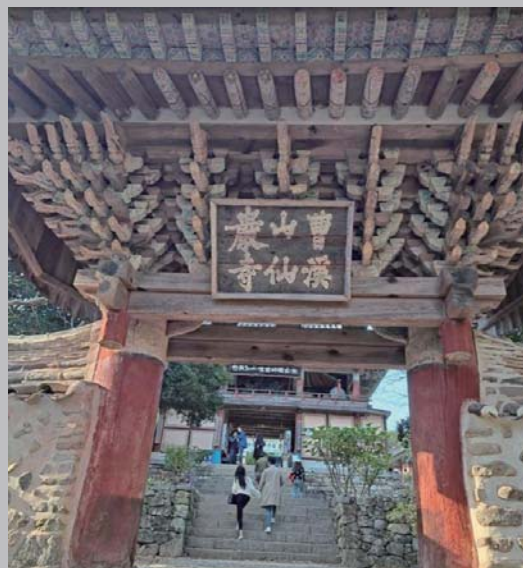
일상생활



의례



산사와 산의 관계



산사의 OUV : 한국불교의 지속과 생존



산사의 OUV : 산지 승원의 자급자족적 경제 활동



산사의 OUV : 불교의례

- 종교적인 위로
- 사회 통합과 안정에 기여
- 불교 전통 문화의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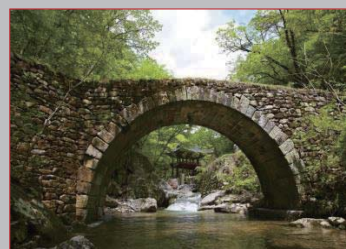
선암사의 OUV

- 산지 승원에서 승려공동체의 전통적인 일상 생활을 위한 시설
- 근대에 전통 승가 교육을 개혁한 중심지로 기능



선선당

심검당



2.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



제4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2011. 4. 8.)

2012. 6.

잠정목록 등재 대상 사찰 7곳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한국의 전통사찰’ 연속유산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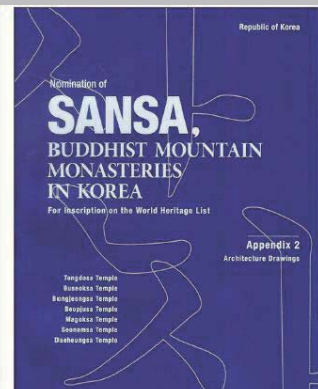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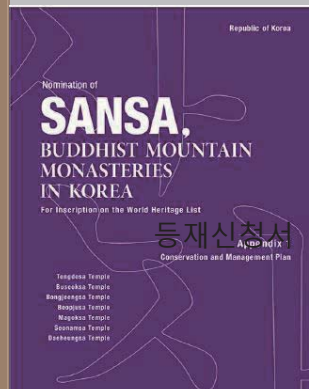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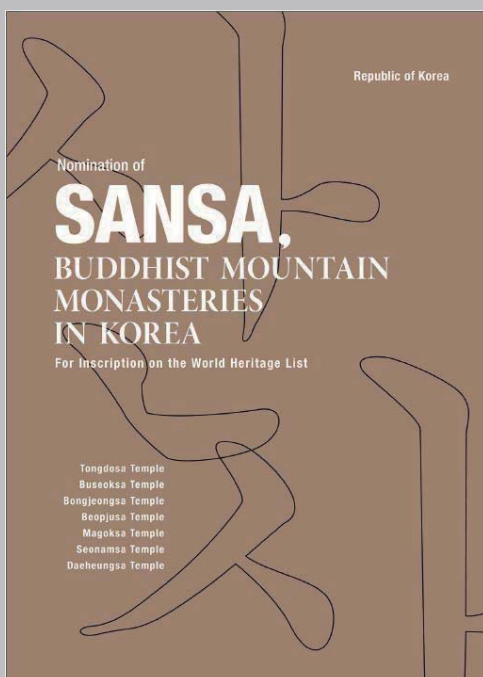
2013. 12.

잠정목록 등재

2015. 12.

‘한국의 전통산사’ 2017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

등재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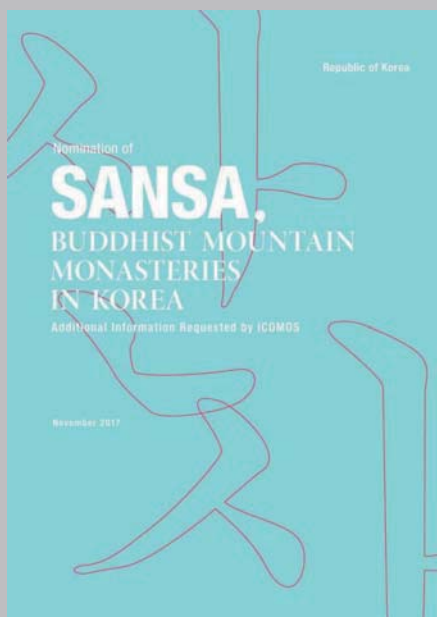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및 부록 (2017. 1. 27)

자문기구의 현지실사(201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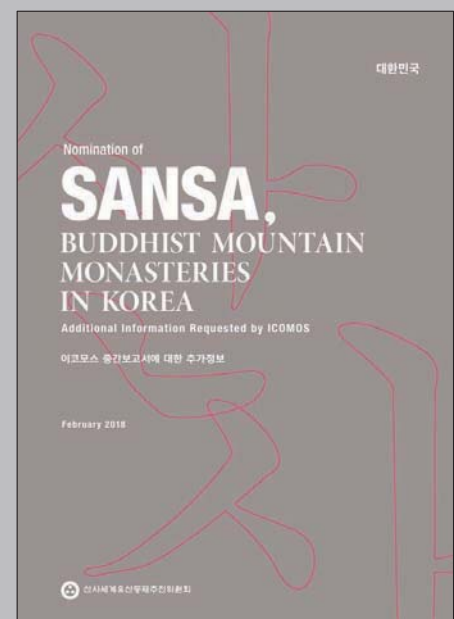


3. 자문기구의 질의 및 권고사항

이코모스의 추가 질의



추가 답변서(2017.11)



중간보고서 답변서(2018.2)

1. 유산요소 선정

등재신청 유산은 표본이 되는 7개 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유형적으로 한국의 산사를 특징짓는 가장 탁월한 사례라는 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들 산사가 전국의 수많은 절이 폐사되던 시기에도 남아있는 점도 이해했습니다.

이코모스는 한국에는 모두 952곳의 절이 있고, 이중 82%는 산지에 위치해 있으며(128쪽), 7개 산사를 선정하기 위해 25곳이 추가적으로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3.1에 7개 유산요소 선정에 대한 몇몇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사술된 특징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위해 제시된 등재기준과 명확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코모스는 당사국이 본 신청서에 제시된 7개 유산요소 선정을 이끈 근거와 방법론, 기준(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은 등재신청 기준이 아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사국은 운영지침 137b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풍부하고 과학적이며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각 유산요소가 해당 유산의 전반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코모스의 추가정보 요청(2017. 10)

이코모스 패널 질의

1	7개 사찰의 선정 기준의 논리성에 대한 질의: 전국에 분포하는 700여개의 사찰 중 25개 사찰을 거쳐 7개 산사가 최종 선정된 과정과 여기에 적용된 논리는 무엇인가?
2	연속유산으로서 7개 사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질의: 7개 산사가 연속유산으로서 사회적, 기능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가?
3	9세기라는 7개 산사의 창건 시기가 산사의 기원에 있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
4	7개 산사의 등재신청 기준인 (iii), (iv)에 대한 질의: 유산의 탁월함과 전형적 특징
5	산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한 문화재청의 기준
6	세계유산목록 또는 잠정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불교 유적과의 비교연구
7	등재 후 관광객의 압력에 대한 대처 방안

이코모스 패널회의 및 당사국 인터뷰
(2017. 11. 23.)

이코모스 중간보고서 (2018.1.12)

ICOMOS

2018년 1월 12일
Our Ref. GB/AS/1562/IR

세계유산목록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대한민국) - 중간보고서

불교의 한국적 표현이 갖는 독특성

이코모스 패널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불교의 독특한 표현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아직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코모스는 공간 배치와 미당의 독특성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한국 내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찾지 못했다. 이와 비슷하게 이코모스 패널은 토속 신앙이 사찰에 융합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는 흥미로웠으나 그 내용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코모스 패널은 본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초점을 신청 유산요소가 갖는 오랜 깊이, 지속성, 생존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무형적 역사적 측면의 독특성을 증명하는 방식에 둘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무형적으로 독특한 측면이라면, 한국 산불교의 명성과 교리학습이 갖는 구체적인 특징, 그리고 사찰 관리, 승려 교육의 특징적인 면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 패널은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속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 보다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

이코모스 패널은 추가정보에 대한 본 요청의 답변에 따라 유산요소의 선택과 비교 분석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아래 확인) 관련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

유산요소 선정

본 패널에서는 7개 유산요소의 선정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당사국이 제출한 신청서와 추가정보에서는 해당 유산요소가 한국의 952개(이중 785개는 산에 위치) 유적 중 선정되었다고 설명한다. 본 패널은 유적의 진정성과 원전성, 주변 환경 여건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25개 유산에서 7개 요소를 선정했다고 알고 있다.

이코모스 패널은 선정된 유산요소가 현 단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해당 연속유산의 선정 방식, 이들 유산요소가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왜 이들 각각의 유산요소가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코모스 패널의 검토 결과는 왜 어떤 유산은 포함되고 다른 유산은 그렇지 않은지 분과 있다. 기림 화엄사, 송광사, 쌍계

사, 풍암사, 수덕사, 해인사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다. 또 이른바 한국의 심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가 모두 들어가 있지 않은 점도 의문이었다. 역사적인 중요성 면에서 일부 유산요소(풍암사, 마곡사, 선암사)는 상대적으로 그 타당성이 약해 보이기도 한다.

이코모스가 아직은 위의 문제에 대해 최종 견해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당사국의 추가적인 설명을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추가정보에는 총 785개 산사 중 어떻게 25개 유적이, 그리고 등재신청을 위해 7개 유산요소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면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방식에 대해 이코모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해당 선정 절차가 신청 연속유산의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요청한다. 본 내용이 7개 유산요소로 선정되도록 한 특징과, 제시한 등재기준을 함께 보여주는 하나의 표 형태로 제출된다면 보다 유용할 듯하다.

연속유산의 유산요소 선정기준

표 3-1. 국내 25개 신지사찰 비교를 통한 신형유산이 가지는 대표성

	사찰명	역사성 지속성과 진정성				입지특성/공간배치	
		7-9세기 창건 역사성 검증	주불전을 통한 신앙성 검증	종합승원 으로서의 지속 여부	공간구성 (종합성 구현)	입지특성	미감 중심 가능 유지 (신앙, 수행, 생활)
1	선암사	○	석가신앙	○	산신각 원통전	곡지 (다원)	○ (적용 가능)
2	내소사	○	석가신앙	○	삼성각	곡지 (일원)	△ (부분적으로 적용)
3	불영사	○	석가신앙	○	철성각	곡지 (일원)	△
4	운문사	○	석가신앙	○	직입전	곡지 (무원)	×(적용 불가)
5	수덕사	○	석가신앙	○	—	경사	×
6	직지사	○	석가신앙	○	—	곡지 (다원)	△
7	장곡사	○	석가신앙	—	삼성각	경사 (일원)	○
8	관룡사	○	석가신앙	—	철성각	경사 (일원)	△
9	운문사	○	석가신앙	—	산신각	경사 (무원)	×
10	전통사	○	석가신앙	—	삼성각	곡지 (무원)	×
11	대흥사	○	석가신앙 호국신앙	○	표충사 산신각	계류 (이원)	○
12	마곡사	○	화엄신앙 석가신앙	○	삼성각	계류 (이원)	○
13	귀신사	○	화엄신앙	—	—	곡지 (일원)	×

	사찰명	역사성 지속성과 진정성				입지특성/공간배치	
		7-9세기 창건 역사성 검증	주불전을 통한 신앙성 검증	종합승원 으로서의 지속 여부	공간구성 (종합성 구현)	입지특성	미감 중심 가능 유지 (신앙, 수행, 생활)
14	선운사	○	화엄신앙	○	산신당	곡지 (일원)	×
15	기림사	○	화엄신앙	—	삼성각	곡지 (이원)	×
16	법주사	○	미륵신앙 석가신앙	○	선희궁원당 삼성각	곡지 (일원)	△
17	금산사	○	미륵신앙	—	삼성각	곡지 (일원)	△
18	봉정사	○	미타신앙 석가신앙	○	산신각	경사 (이원)	○
19	부석사	○	미타신앙	○	선묘각 삼성각	경사 (일원)	○
20	봉암사	○	미타신앙	○	—	곡지	×
21	무량사	○	미타신앙	—	산신각	곡지	×
22	무위사	○	미타신앙	—	—	곡지(무원)	×
23	통도사	○	계율신앙 석가신앙	총원	삼성각 가림각	곡지 (다원)	○
24	범어사	○	석가신앙	총원	산신각 독성각	경사 (다원)	×
25	쌍계사 (하동)	○	석가신앙	총원	삼성각	경사 (다원)	△

√ '전통사찰법'에 의해 한국 전통사찰로 인정
(952개)

√ 산지 입지
(785개)

√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63개)

√ 7-9세기 창건
√ 관련 자료의 신뢰성
(25개)

√ 선원 운영
√ 원지형 유지
(7개)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사찰명	7-9세기 창건	관련 자료의 신뢰성	선원 운영	원지형 유지
	등재기준 (iii)	진정성	등재기준 (iii)	등재기준 (iv) 완전성
관룡사	○	○	—	—
귀신사	○	○	—	△
금산사	○	○	○	—
기림사	○	○	—	—
내소사	○	○	○	—
대흥사	○	○	○	○
마곡사	○	○	○	○
무량사	○	○	—	○
무위사	○	○	—	—
범어사	○	○	○	△
법주사	○	○	○	○
봉암사	○	○	○	—
봉정사	○	○	○	○
부석사	○	○	○	○
불영사	○	○	○	—
쌍계사(하동)	○	○	○	—
선암사	○	○	○	○
선운사	○	○	○	△
수덕사	○	○	○	—
흥문사	○	○	—	—
운문사	○	○	○	—
장곡사	○	○	—	○
전통사	○	○	—	—
직지사	○	○	○	—
통도사	○	○	○	○

이코모스 심사평가서의 권고사항(2018.5)

이코모스는 많은 한국불교 산사가 오랜 세월을 걸쳐 유형적/건축적인 전통과 무형적 승원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산사들은 불교 문화 전통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코모스는 기준(iii)이 7개 신청유산 중 4개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당사국이 제공한 증거와 분석의 속성 때문에 기준(iv)는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이코모스는 신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신청 유산들 중 4곳(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에서 입증된다고 생각한다. 이코모스는 나머지 신청유산(봉정사, 마곡사, 선암사)이 전체 유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코모스는 신청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코모스는 전반적으로 일련의 유산들의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코모스는 산불을 유산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의 증대 또한 미래의 압력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코모스는 사찰 경내의 모든 신규 건물의 건설 계획이 신청유산의 OUV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경우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의 172항에 의거하여 세계유산센터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8. 권고 사항

등재에 관한 권고사항

이코모스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신청된 7개 유산 중 4개인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를 기준(iii)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 권고사항

이코모스는 당사국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추가적으로 권고한다.

- a)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비-문화유산 요소들'에 대한 계획방안을 수립할 것, 신규건설과 수리 개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것, 증인 절차들을 명시할 것.
- b) 통도사, 법주사, 대흥사에 대한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할 것.
- c) 사찰 경내의 적절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의 관광객 압력(특히 성수기)을 완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
- d) 사찰 단지 (이 평가 보고서에 언급된 것들을 포함)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규 건설 계획은 신청 유산들의 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72항에 의거하여 세계유산센터에 통보되어야 함을 보장할 것.

자문기구 이코모스 권고안(2018.5)

승가공동체의 자급자족적인 사찰운영, 스님들의 생활과 교육, 선수행과 경학 등과 같은 무형적 소산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유산적 가치 인정

등재 권고



상대적으로 역사적 중요성 부족
봉정사의 경우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외

정오표 제출



FORM FOR THE SUBMISSION OF FACTUAL ERRORS IN THE ADVISORY BODIES EVALUATIONS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150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

STATE(S) PARTY(IES): Republic of Korea

EVALUATION OF THE NOMINATION OF THE SITE: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RELEVANT ADVISORY BODY'S EVALUATION: ICOMOS

Page, column, line of the Advisory Body Evaluation	Sentence including the factual error (the factual error should be highlighted in bold)	Proposed correction by the State Party	Comment (if any) by the Advisory Body and/or the World Heritage Centre
p. 126, left, line 7	Although many members of the royal family, particularly women, were Buddhists, Buddhism was suppressed and the court ceased to patronise monasteries.	Clarification: Although Buddhism was suppress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many members of the royal family, including the sovereigns, remained as Buddhists, and the royal patronage of Buddhism had continued through the Joseon period. <i>See Dossier, pp. 54, 81, 122, 150, 2nd Additional Information, p. 12</i>	ICOMOS acknowledges this clarification.
p. 126, left, line 31	and Buseoksa and Bongjeongsa were founded by the Silla monk Uisang from 676.	Clarification: Buseoksa was founded by the Silla Monk Uisang in 676 and Bongjeongsa was founded by his disciple Neungin in 677. <i>See Dossier, pp. 65, 66, 100</i>	ICOMOS accepts this correction as a factual error.
p. 126, left, line 33	Baek Jajang and Uisang were proponents of the Avatamsaka school (known as Hwaom in Korean).	Clarification: Master Jajang introduced Vinaya school to Korea, and Master Uisang served to propagate the Avatamsaka tradition (known as Hwaom in Korean) in Korea. <i>See Dossier, pp. 60, 63</i>	ICOMOS accepts this correction as a factual error.
p. 126, left, line 34	and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is Avatamsaka tradition is found at Buseoksa, Bongjeongsa, and Beopjusa temples.	Clarification: and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is Avatamsaka tradition is found at Buseoksa and Bongjeongsa. The foundation of Beopjusa was based on Beopgung (Dharma Characteristics) school. <i>See Dossier, p. 89</i>	ICOMOS accepts this correction as a factual error.

Factual errors letters

WHC/1842.COM/INF.B4 p. 79

정오표(2018.6)

Non-Paper : 외교지지도삽자료

Contribution of each component to the OUV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Republic of Korea)		Annex A
a. Amalgamation of Major Religious Thoughts and Beliefs of Korean Buddhism Despite the temple's underlying system of thought,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a new example that retains the OUV of the site. It demonstrates an amalgamation of the various religious traditions before the Joseon period.	Sansa (Foundation) Belief Sakyamuni Amitabha Maheśvara Vairocana Subhakarasiṃha	1. Tongdosa 2. Buseoksa 3. Bongjeongsa 4. Beopjusa 5. Magoksa 6. Seonamsa 7. Daeheungsusa
	b. Spatial Configuration and Intangible Aspects of Comprehensive Monastery With the Hall of Paradise, the oldest extant wooden building in Korea, Beopjusa is a new example that retains the OUV of the site. It demonstrates an amalgamation of the various religious traditions before the Joseon period.	8. Daeheungsusa 9. Seonamsa 10. Beopjusa 11. Magoksa 12. Buseoksa 13. Bongjeongsa 14. Tongdosa
c. Continuity of Sansa through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For providing Buddhist teachings, Sansa was the largest center of education in the Joseon period. It demonstrates an amalgamation of the various religious traditions before the Joseon period.	15. Seonamsa 16. Beopjusa 17. Magoksa 18. Buseoksa 19. Bongjeongsa 20. Tongdosa	21. Seonamsa 22. Beopjusa 23. Magoksa 24. Buseoksa 25. Bongjeongsa 26. Tongdosa
	27. Seonamsa 28. Beopjusa 29. Magoksa 30. Buseoksa 31. Bongjeongsa 32. Tongdosa	33. Seonamsa 34. Beopjusa 35. Magoksa 36. Buseoksa 37. Bongjeongsa 38. Tongdosa

Criterion(iii) : Sacred places providing exceptional testimony to their long and continuing traditions of Buddhist spiritual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nominated serial property offers a distinctively Korean instantiation of Buddhist monastic culture from the 7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series temples are closely linked each other 'historically', 'spiritually' and 'socially' representing important phases of the evolution of distinct Korean Buddhism. 	1. Tongdosa 2. Buseoksa 3. Bongjeongsa 4. Beopjusa 5. Magoksa 6. Seonamsa 7. Daeheungsusa
--	--

a. Amalgamation of Major Religious Thoughts and Beliefs of Korean Buddhism

Annex B

Sansa found in the 7th and 9th centuries embodies key thoughts and religious features of Korean Buddhism. While having retained the underlying system of thoughts and beliefs, the monasteries subsequently accommodated additional beliefs within one temple.

7. Daeheungsusa

- Foundation: late 9th century
- School: Seon(Meditation)
- Belief: Sakyamu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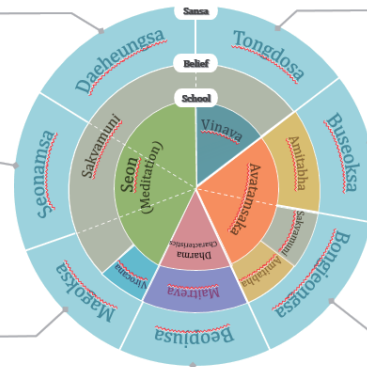
6. Seonamsa

- Foundation: late 9th century
 - School: Seon(Meditation)
 - Belief: Sakyamuni
- Seonamsa, established as a Seon temple whose layout is centered around the Hall of the Great Hero for the belief in Sakyamuni.

5. Magoksa

- Foundation: late 9th century
- School: Seon(Meditation)
- Belief: Sakyamuni, Vairocana

Magoksa was founded as a temple of the Seon school of Buddhism. It contains the two major Buddha Halls for the belief in Sakyamuni and Vairocana.



1. Tongdosa

- Foundation: 646, Jajang
- School: Vinaya
- Belief: Sakyamuni

2. Buseoksa

- Foundation: 676, Uisang
- School: Avatamsaka
- Belief: Amitabha


3. Bongjeongsa

- Foundation: 677, Neungin
 - School: Avatamsaka
 - Belief: Sakyamuni, Amitabha
- Bongjeongsa, founded by the Avatamsaka school, has two main areas signifying the coexistence of beliefs in Sakyamuni and Amitabha respectively.

4. Beopjusa

- Foundation: mid-8th century, Jinpyo
- School: Dharma Characteristics
- Belief: Maitreya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2018.6.30)

	World Heritage 42 COM
AMENDMENT	
Item of the Agenda	8B
Amended Draft Decision	42 COM 8B.23
Amendment submitted by the Delegation of...	Angola, Azerbaijan, Bahrain,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Burkina Faso, China, Guatemala, Indonesia, Kuwait, Kyrgyzstan, Saint Kitts and Nevis, Spain, Tunisia,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Zimbabwe.
Date	28 June 2018
TEXT	
Draft Decision : 42 COM 8B.23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1. Having <u>examined</u> Documents WHC/18/42.COM/9B and WHC/18/42.COM/INF.8B.1,	
2. Inviting <u>Seven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Republic of Korea</u> , namely the seven nominated serial components: Tongdosa, Beomeosa, Beopseong, Beopgong, Mogoksa, Seonamsa, and Daeseungsa,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basis of <u>criteria (iii)</u> ,	
3. <u>Adopts the following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u>	
Brief synthesis:	
Seven new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locat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Seven temples – Tongdosa, Beomeosa, Beopseong, Beopgong, Mogoksa, Seonamsa, and Daeseungsa – established in the 7 th to 9 th centuries represent these ancient and continuing centres of spiritual practice. The seven temples have historical associations with different schools of Buddhist thought and contain many individually notable historic structures, objects and documents, shrines and halls. The specific intangible and historical aspects of Korean Buddhism are	
Email Reporter : wh-reporter@unesc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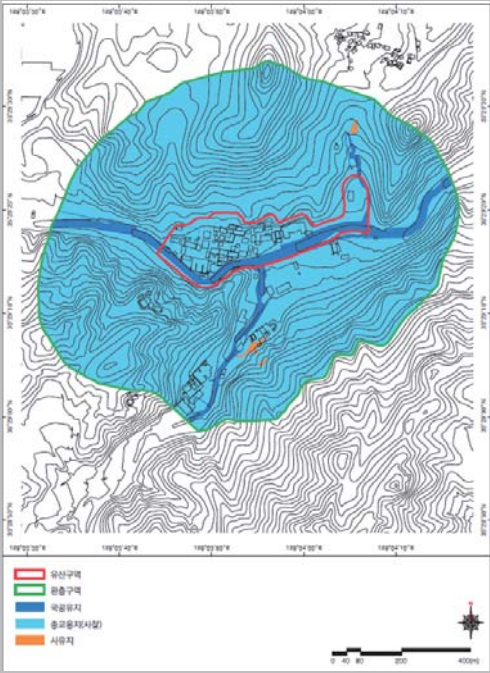


17개국의 위원국들이 제출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수정안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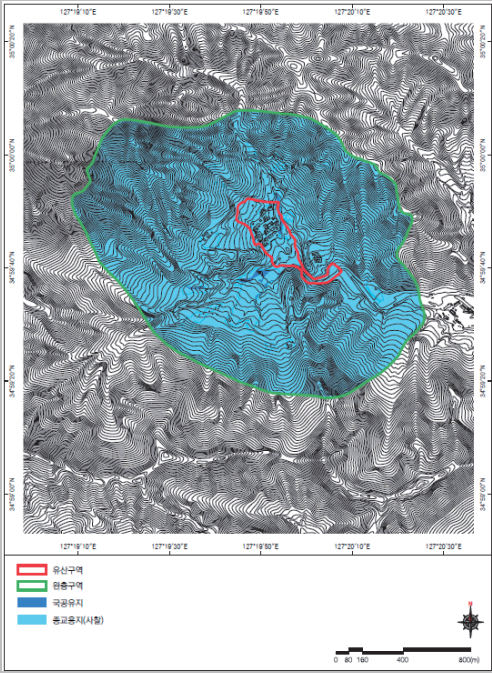
4.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 및 권고사항

<p>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Decision 42 COM 8B.23</p>	<p>대한민국의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등재기준 (iii)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한다.</p> <p>간략한 개요 산사는 한반도 전역에 위치한 불교 산지 사찰들이다.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설립된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u>7개</u>의 사찰은 이들 고대의 수행 중심지이자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수행의 중심을 대표한다.</p>
<p>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찰 내 기존의 '비문화재 요소'에 대한 계획적 조치를 마련하고, 신축, 개조 및 재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승인 절차를 명시할 것 2. 통도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사찰의 문화유산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것 3. 사찰 내 적절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방문객 압박(특히 성수기 동안)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개발할 것 4. 세계유산 운영지침 제172항에 따라, 해당 연속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찰 단지 내의 모든 신축 프로젝트(평가 보고서에 언급된 프로젝트 포함)를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

산사의 개발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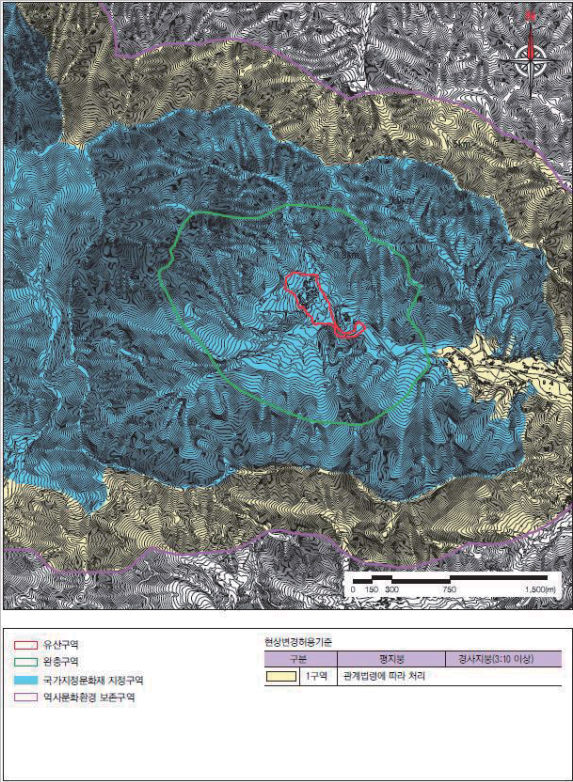


통도사 토지소유 현황도



선암사 토지소유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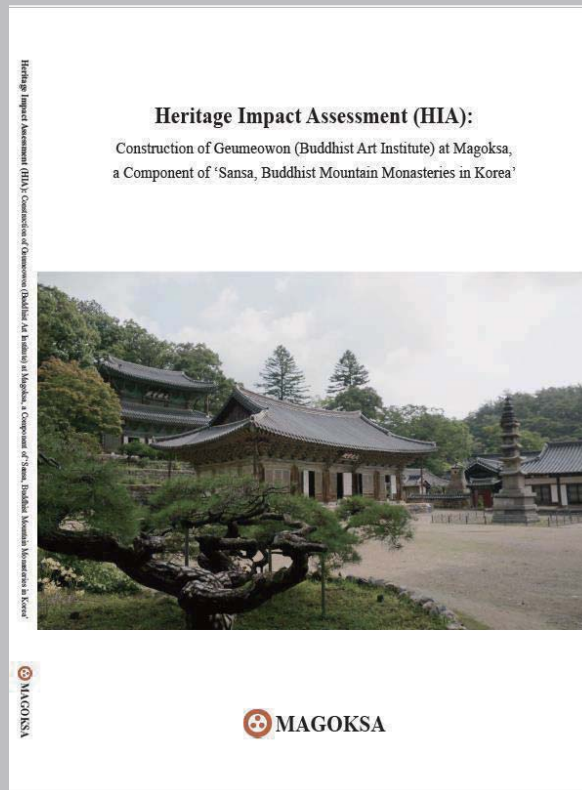
산사의 개발 압력



선암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세계유산 기준에 맞춘 지속가능한 관리 -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살아있는 종교 유산의 가치와 특성을 고려한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권고사항 이행



5. 산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유산의 보존관리 인력 배치현황

사찰	스님	사찰 관리원 (종무소)	문화재 관리원	문화관광해설사
통도사	경내 거주 150명 (소속 승려 약 250명)	104명	상시 6~7명	• 6명 이상 상시 배치 - 문화유산 해설사 3명 이상 - 불교문화 해설 봉사자 3명
부석사	경내 거주 6명 (소속 승려 약 16명)	6명	상시 2명	• 문화유산 해설사 3명
봉정사	경내 거주 6명 (소속 승려 약 15명)	6명	상시 1명	• 문화유산 해설사 2명
법주사	경내 거주 70명 (소속 승려 약 150명)	32명	상시 2명	• 문화유산 해설사 2명 • 숲 해설사 7인
마곡사	경내 거주 15명 (소속 승려 약 25명)	21명	상시 2명	• 문화관광해설봉사자 2명
선암사	경내 거주 약 53명 (소속 승려 약 70명)	13명	상시 1~2명	• 문화유산 해설사 2명
대흥사	경내 거주 8명 (소속 승려 약 121명)	16명	상시 1명	• 문화유산 해설사 1명 • 시니어 문화유산해설사 1명

사찰별 거주인원(2016년 11월 기준)

산사의 지역/커뮤니티 - 신도회



신도회 현황

Name of group	No. of members	Activities
Heritage Keepers	200	The purpose of this group is to give young people a true experience of the Buddhist culture of Tongdosa Temple as a way to help them understand and widely spread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through various volunteer activities instill in them a sense of community and enhance their abilities and potential.
Jeongmyeol Doryang Association	66	The purpose of this group is to preserve the Buddhist culture of Tongdosa Temple and promote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Buddhist culture by serving as volunteer guides explaining Buddhist culture to believers and visitors who come to worship at the temple.
Buddhist Cleanliness Association	Open to applicants	All members volunteer once a month to carry out cleaning and cultural heritage maintenance work.
Temple Volunteer Group	Open to applicants	This group provides volunteer service for operation of the temple stay program, including cleaning and provision of robes.
Paramita Volunteers Association	20	This group includes people who have been working with the four orders of Buddhist followers and hence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Sarira Pagoda Volunteers Association	29	This group takes care of the stupa containing true relics of the historical Buddha and also participates in various events of the four orders of Buddhist followers.
Volunteer Group for Proctor's Office	Open to applicants	This group of volunteers takes part in food preparation for various events held at the temple.
Seon Tea Association	90	With the aim of training mind and body through tea drinking and seon meditation, this group promotes the tea culture through tea rites held at the stupa containing the historical Buddha's relics; tea offerings at the stupa in the Gaesan-daesae, a ceremony to mark the enshrining of the Buddha's relics at Tongdosa Temple; tea education for foreign visitors; and participation in various events.
Charity Prayer Association	53	This group focuses on prayer for consoling the souls of the dead through voluntary prayer and work at the funerals of those in financially needy circumstances.
Flower Lifting Association	20	Volunteer group carrying out various tasks related to care of the offerings made in the temple halls and in the rear garden.
Youth Association	50	This group promotes learning of the basic doctrines through participation in regular dharma assemblies as well as friendship among members, and carries out diverse volunteer work such as visits to orphanages and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four orders of Buddhist follower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ssociation	Open to applicants	Youth group composed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Choir	50	This is a volunteer group participating in temple events and dharma assemblies.

통도사 신도회

단체명	인원(명)	활동내역
신도회	60	사찰관련 행사 시 준비 및 봉사활동
보리수회	11	사찰행사시 자원봉사, 사찰 관리를 위한 봉사활동
천등회	13	사찰행사시 자원봉사, 꽃꽂이, 사찰 관리를 위한 봉사활동

봉정사 신도회

단체명	인원(명)	활동내역
신도회	500	사찰행사와 환경정화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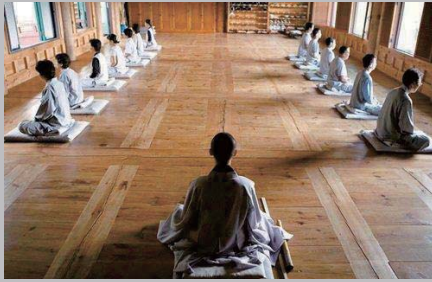
선암사 신도회

단체명	인원(명)	활동내역
한들 거사회	132	남성 신도들 모임으로 각종 사찰활동에 참여
한들 보살회	60	남성 신도들 모임으로 각종 사찰활동에 참여
보리회	51	40~50대 여성 신도들의 모임으로 청소와 음식물 가공 및 조리 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불교 청년회	20	불교학생회를 졸업한 젊은 신도들로서 사찰행사시 봉사활동 참여
한들 다인회	9	차 문화 연구와 사찰행사 시 다례 시연 담당
한들 선재회	12	대흥사 부설 어린이집 학부모로 구성, 음식조리 등 봉사활동 참여
포교사단	9	각종 사찰행사 지원
기타 봉사활동	희망자	남성 신도들은 환경정화활동에 참여, 여성 신도들은 음식 조리 등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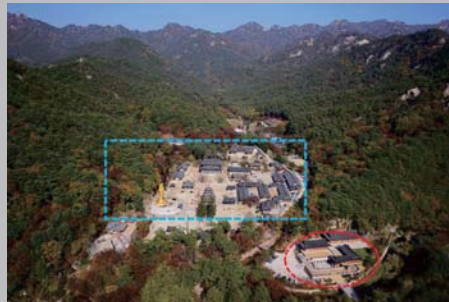
대흥사 신도회

산사의 유산 활용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마곡사



범주사



봉정사

연속유산으로서 산사의 보존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 통합보존관리기구의 부재

'산사 통합보존관리센터'의 필요성

- '산사'는 7개 사찰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통합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 필수
 - 5개 광역과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소재
 - 2개의 불교 종단에 의해 관리
- 통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7개 사찰을 하나의 유산으로 설명, 해석
- 7개 사찰을 넘어 100여개의 한국의 전통사찰을 '산사'로 통합·활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7개 구성요소를 하나의 유산으로 설명
 - 통합 안내 해설 책자 및 홍보물 제작, 통합홈페이지 구축, 유튜브 통합홍보 채널 개설 등
-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통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속유산 산사의 보존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 통합 모니터링 지표 개발 시급

보존상태 측정 주요 지표

보존상태 측정 주요 지표			주 기	기록보관 장소
신청유산	목조 건축물, 석조 시설물	문화재와 주변의 보존·관리상태 점검1)	매일	• 기초지방자치단체 • 신청대상 7개 사찰
		문화재의 보존·관리상태 육안조사2)	6개월(반기)에 한번	• 기초지방자치단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점검		5년에 한번	• 문화재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시설 점검		1달에 한번	• 기초지방자치단체 • 신청대상 7개 사찰
	전기시설 점검		1달에 한번 (보정사는 1년에 한번)	• 기초지방자치단체 • 신청대상 7개 사찰
	방문자 수		매일	• 신청대상 7개 사찰
	유산구역의 거주민 수		1년에 한번	• 기초지방자치단체
완충구역	완충구역의 거주민 수		3년에 한번	• 기초지방자치단체
	경관 및 주변 환경		2년에 한번	• 기초지방자치단체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일반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한다. - 화재(방화 포함), 도난 훼손요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항상 염두에 둔다. -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및 수상한 차량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 - 내방객에게 정갈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문화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문화재 일반점검	- 외부지역으로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Y/N
	- 석축의 이완·침하·균열 및 붕괴된 곳이 있는가?	Y/N
	- 담장이 붕괴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Y/N
	- 전원 및 배선·안전가 등 전기시설은 양호한가?	Y/N
	- 건물 내·외에 화재 우려의 시설이 있는가?	Y/N
	- 홍수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가?	Y/N
	- 화장실 및 관할 편의시설은 정갈한가?	Y/N
	- 마당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은가?	Y/N
	- 문화재 내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은 없는가?	Y/N
	- 경사지 법면의 붕괴우려는 없는가?	Y/N
	- 기락 훼손되거나 불상한 곳이 있는가?	Y/N
	- 기타	
문화재 주변점검	- 담장/석축 등이 안전한가?	Y/N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이 없는가?	Y/N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철수위험이 없는가?	Y/N
	- 문화재주변 배수시설 상태가 양호한가?	Y/N
	- 문화재주변 수림/지형 등의 무단훼손이 있는가?	Y/N
	- 문화재주변 시설물 훼손이 있는가?	Y/N
	- 기타	

유산 관리상황 점검표

문화재 유형	조 사 내 용	
목조문화재	자진 및 자반상태	자진구역 해당여부, 기반부 훼손상태, 주변 배수로 상태, 위험요소 등
	구조형식	우주의 상태, 층수, 내진주요부, 활주요부, 종도리 세장비, 반자 유무, 건축물 평면 세장비, 우주초석 세장비 등
	구조부재상태	기둥치합상태, 수평부재 파손여부, 걸구부 훼손여부, 구조부재 종해 여부, 지점부위 부식 여부, 건물내부 누수여부 등
	지점면 상태 및 내부상황	지점면 굴곡 여부, 덧서까래 유무, 건물내부 문화재 유무 등
석조문화재	자진 및 주변현황	자진구역 해당여부, 주변 배수로 상태, 위험요소 등
	전체시스템 형태 및 구성	개구부 여부, 층수, 높이, 기반부 세장비, 전체형상의 세장비, 계단 등
	부재 구성	기단부 구조형식, 탑신부 1층의 구조형식, 탑신부 2층 이상의 구조형식 등
	보존 상황	구성부재의 열화수준, 전체 구조의 기울어짐, 기단부 부재의 파손 및 변형, 탑신부 1층 부재의 파손 및 변형, 탑신부 2층 이상 부재의 파손 및 변형

유산 보존 · 관리상태 육안조사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산사

➤ 「세계유산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Thank you



세계유산 선암사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전영우
(국민대학교)

세계유산 선암사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전영우/국민대 명예교수

목 차

- I. 서언
- II. 국가유산 체계와 유네스코 유산 체계의 합치 의의
- III.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순천시의 상징성
- IV.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의 보존과 활용 방안
- V. 맺음말

I. 서언

순천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지자체이다. 선암사를 비롯한 7곳의 사찰이 '한국의 산지 승원(2018년)'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이 목록에는 선암사 외에도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가 포함된다.

또한, 순천만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2021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순천시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14건에 달하지만,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석굴암·불국사(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창덕궁(1997년), 화성(1997년),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 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2018년), 한국의 서원(2019년), 가야고분군(2023년) 등이 있다.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그리고 한국의 갯벌(2021년) 등 두 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 글은 1)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유산 체계와 유네스코 유산체계의 합치 의의를 설명하고, 2)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순천시의 위상 강화 방안과 함께 3)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의 전통 경관 복원 방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II. 국가유산 체계와 유네스코 유산 체계의 합치 의의

가. 국가유산 체계의 전환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체계가 국제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는 유네스코 유산 체계와 합치된 원년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시행해 오던 『문화재보호법』(1962년)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덕분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0년 동안 『문화재보호법』(1962년)에 근거하여 문화재 정책을 운용해 왔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財'(property)가 '재화, 사물, 재산'의 성격이 강하여 '과거 유물의 재화적 가치'에 한정하거나, 문자 그대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만을 뜻하는 한계가 있어서 '문화재' 대신에 '유산'이란 용어로 교체했다.

'유산'이란 용어로 교체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계를 규정하는 법체계가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1933년)에 뿌리를 두고, 해방 후 일본이 1950년에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상당 부분 수용한 까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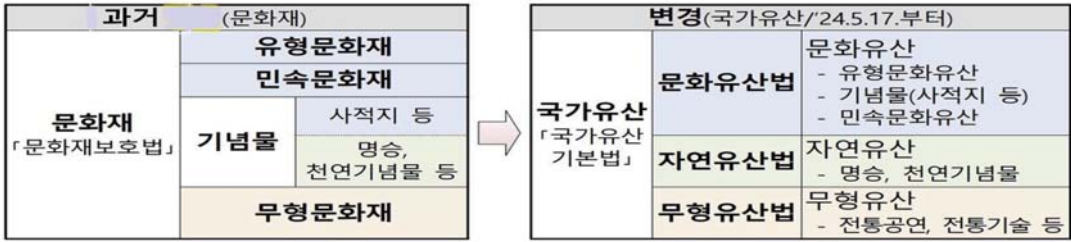
'문화재'를 '유산'으로 교체함에 따라 현안으로 제기된 또 다른 문제점은 문화재 분류 체계였다. 우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 재화적 의미가 투영된 '문화재'란 용어를 행정 용어로 사용해 왔지만, 유네스코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50년 전부터 채택하여 유산을 분류해 왔기 때문이다.

[표1] 국내외 유네스코의 유산 분류체계

국내의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유산'은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며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는 의미와 '사적 소유나 재산적 가치'보다는 '공동체 가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2003년)에 따라 문화재를 유산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유산' 개념을 문화재 정책에 준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유산의 분류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는 60년 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체계로 운용함으로써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국내·외 운용 규범의 상이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관련 학계는 수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네스코 유산 분류 체계와 국내 분류 체계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22년 문화재청은 개별 유산의 형태와 속성을 고려하여 대분류 및 중분류를 재편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국가 및 시도 지정·등록) 체계와 관련 법률 체계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 뼈대가 되는 법제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및 시행(2024. 5. 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법) 개정(2024. 2. 13.) 및 시행(2024. 9. 1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법) 제정(2023. 3. 21.) 및 시행(2024. 5. 17.)으로 완료되었다.

[그림1] 문화재 체계'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출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이란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말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산으로 천명함으로써 국가가 이 땅의 모든 유산을 보호한다는 책무성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은 국가의 품격, 문화적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즉 문화국가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국가유산 개념은 첫째, 포괄적 개념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며, 셋째, ‘국가’라는 용어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넷째, ‘유산’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사적 소유 관념에서 공동체 가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섯째, 세계유산 협약에 대응하기 유리한 점을 들 수 있다.

정리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면 분류 체계 또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재정립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이라는 큰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에 비해 그간 소홀히 다뤄왔던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문화유산과 동등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의미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2024년 7월 현재)은 총 1,233건으로, 문화유산 952건, 자연유산 231건, 복합유산 40건이다. 대한민국은 총 56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세계 20위권 유산 강국이다. 우리나라의 등재 현황은 세계유산(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2건) 16건으로 세계 20위, 인류무형유산은 22건으로 3위, 세계기록유산은 18건으로 4위에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건수는 흔히 한 국가의 문화적 품격을 상징하는 지표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세계유산이 한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산 소재 지역 및 국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나라마다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59건(문화유산 40건, 자연유산 15건, 복합유산 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26건(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5건), 북한은 문화유산만 2건을 보유하고 있다.

[표2]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건수와 동아시아 국가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 168개국 (2024. 7 현재)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문화유산	952	14	2	40	21
자연유산	231	2		15	5
복합유산	40			4	
계	1,233	16	2	59	26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22~’ 23년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 14위)의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67달러였으나, 70여 년이 지난 2023년에는 3만 6,194달러로 500배 이상 증가하여 국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었다.

우리의 현대사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문화적 소양도 함께 성장했던 시기였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다양한 문화시설의 향유 경험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소양을 높였고, 이는 국가의 문화적 품격으로 나타났다. 하여 앞으로 물질적 가치관에 경도되어 한국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이 땅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우리가 한국인임을 지켜줄 정체성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유산은 물론이고 세계유산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 하리라 믿는다.

Ⅲ.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순천시의 상징성

가.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으로 본 순천시의 위상

순천시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순천시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은 국가적 자긍심과 문화적 품격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산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로서의 자긍심과 더불어 유산의 보호와 활용에도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1,233건의 세계유산 중,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함께 보유한 세계의 도시는 케이프타운과 순천시뿐이라는 사실에서 순천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은 시내 앞 항만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 로벤섬(Robben Island)과 도시 인근의 세계자연유산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Table Mountain National Park)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로벤섬은 넬슨 만델라가 수감되었던 역사적인 감옥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이다. 2004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경관으로, 독특한 식물군과 동물군이 서식하고 있다. 이 두 세계유산 간의 거리는 12~15k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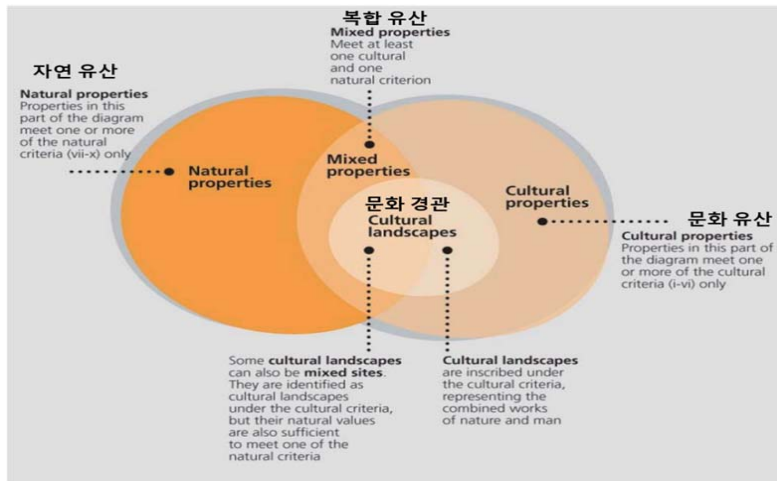
이밖에 도시 근교에 자연유산이 위치한 곳으로는 호주의 시드니를 들 수 있다. 시드니 근처에 위치한 블루마운틴 지역(Greater Blue Mountains Area)은 생물다양성과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시드니 시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는 현대 건축의 걸작으로, 200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시드니에서 블루마운틴 지역 간의 거리는 80~100km이며, 두 곳을 직접 연결하는 특정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없다. 하지만 시드니 지역의 두 랜드마크의 공유 가치를 진작하기 위해 사암 지역의 전통 지식과 오페라 하우스의 환경 과학을 통합하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이처럼 진귀하다. 이 진귀함에서 우리는 순천시의 상징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복합유산을 보유한 도시들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제한 곳도 있다. 바로 복합유산으로,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은 곳을 말한다.

[그림2]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분류 (출처: UNESCO/ICCROM/ICOMOS/IUCN, 2011. p. 34)



유네스코 복합유산을 보유한 도시는 자연경관과 인류의 역사 또는 문화적 업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다. 도시가 직접 복합유산을 보유한 사례는 드물지만, 그 근처 지역을 포함해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산과 바다 사이의 카리오카 경관’ (Carioca Landscapes between the Mountain and the Sea)은 2012년에 등재되었으며, ‘치주카 국립공원(Tijuca National Park)의 산꼭대기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도시 형성과 발달에 영감을 준 중요한 자연 요소들을 망라하는 독특한 도시와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파카바나(Copacabana) 해안 경관, 1808년에 설립된 식물원, 예수 그리스도 동상이 서 있는 코르코바두(Corcovado) 산, 구아나바라(Guanabara)만 주변의 언덕 등이 유산에 포함되었다. 이들 경관은 10km 거리에 펼쳐져 있다.

리우의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 생활의 혼합을 경험하게 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가이드 하이킹, 구아나바라 만 주변의 보트 투어 또는 코파카바나 해변(트립몬도)(세계문화유산)의 개인 투어도 활성화되어 있다. 비록 단일 “카리오카 랜드스케이프”의 탐방 일정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없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에게 놀라운 도시 풍경의 다양한 요소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및 소치밀코: 멕시코시티의 역사적 중심지와 소치밀코(Historic Centre of Mexico City and Xochimilco)는 도심 내 아스텍아 문명의 중요한 유적과 역사적인 도시 계획, 그리고 소치밀코 지역의 전통적인 수상 농업 시스템과 자연환경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세계유산으로 유명하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복합유산으로 1987년에 등재되었다. 도심에서 소치밀코까지의 거리는 20~25km로, 차량으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두 사이트를 결합한 통합 투어 프로그램은 없지만, 많은 투어 운영자가 맞춤형 여정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자들은 멕시코시티 내의 랜드마크인 아스텍의 마요르 유적지(Templo Mayor)와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메트로폴리탄 대성당, 팔라시오 데 벨라스 아르테스)을 탐방한 후, 아스텍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치밀코의 운하와 수상 정원(치남파스) 네트워크를 체험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인기 있는 소치밀코 체험 방법은 전통적인 트라히네라스(밝은 색의 보트)를 타는 것이다.

이밖에 잠재적인 복합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일본 교토를 들 수 있다. 교토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과 신사 12곳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12곳의 문화유산은 기요미즈데라

(清水寺), 지쇼지(慈照寺, 일명 긴카쿠지 銀閣寺), 가모미오야 신사(賀茂御祖神社), 카모 와케 이카즈치 신사(賀茂別雷神社), 니조성(二条城), 니시혼완지(西本願寺), 고코쿠지(教王護国寺, 일명 東寺), 료안지(龍安寺), 닌나지(仁和寺), 로쿠온지(鹿苑寺, 일명 金閣寺), 텐류지(天龍寺), 사이호지(西芳寺)이다. 한편, 교토 서쪽에 위치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아라시야마(嵐山)는 대나무 숲과 도게츠교(渡月橋) 등이 유명하여 잠재적인 복합유산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교토 시내에서 아라시야마(嵐山)까지는 8~10km 정도의 거리로,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된다.

시내 12곳의 세계문화유산에 이어 교토는 산티아고 순례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단 2개의 순례길 중 하나인 ‘기이 산지 참예도(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 이세지(紀伊路)의 시발점이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교토 남쪽으로 난 이세지 구간(170km)이 고대 돌길과 경치 좋은 고개를 통과하며, 전통 여관에 머물고, 지역 신사를 방문하고, 온천에서 정화 의식에 참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토의 도시적 역사적 아름다움과 기이반도의 영적인 풍경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 순천시의 위상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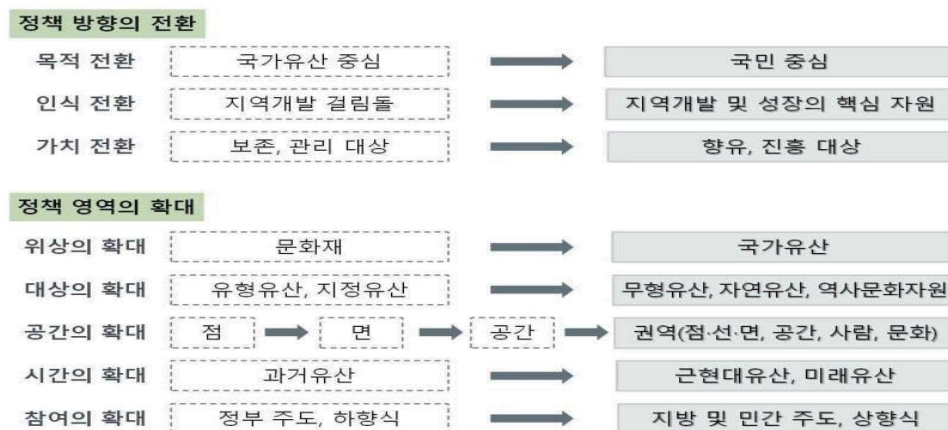
한 도시가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례나 복합유산을 보유한 사례는 소수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보유 측면에서 순천시는 특별한 지자체이며, 순천시의 유네스코 행정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 체계의 정책 방향을 적극 활용하자.

국가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민속유산을 총괄하는 국가유산청이 2024년 5월 17일부로 개청함에 따라 정책 방향과 정책 영역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국가유산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에서 지역 개발 및 성장의 핵심 자원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보존 및 관리 대상에서 향유 및 진흥 대상이라는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 영역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개청과 함께 표명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전개해 온 점, 면, 공간 단위의 국가유산 행정을 권역(점, 선, 면, 공간, 사람, 문화) 단위로 확대한다는 점과 정부 주도의 하향식 행정 대신에 지방 및 민간 주도의 상향식으로 정책을 전개한다는 정책 영역의 확대이다.

[그림3] 국가유산청이 새롭게 전개할 정책 방향과 정책 영역(출처: 국가유산청)



순천시는 새롭게 변한 국가유산 정책 방향과 확대된 정책 영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권역 단위 및 지방 및 민간 주도의 상향식 참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

2) 세계유산 보유 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 지원 체계와 홍보 체계의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산과 함께 세계유산을 담당할 세계유산본부를 두고 있다. 유산정책부 내에는 국가유산 업무를 취급하는 유산정책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와 함께 세계유산과 조직이 있으며, 과장을 포함해 14명의 직원이 세계유산 업무를 담당한다. 순천시는 문화관광국 국가유산과에서 한 주무관이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계유산 보유 도시 순천 브랜드 구축, 세계유산 활용 사업, 세계유산 홍보 사업, 세계유산 도시협의회 및 추진단 운영 지원, 연등축제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구와 인력 확보, 독자적인 부서 운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로서 순천시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라의 명품 정원인 국가정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차후에는 나라 전역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각인시키고, 나아가 아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홍보하자.

3) 갯벌과 선암사를 거점으로 주변 명소를 권역으로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은 국민 중심으로 향유 및 진흥의 대상임을 제시했으며, 정책 영역 확대는 권역과 지방 및 민간 주도를 천명했다. 따라서 순천시도 그에 합당한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권역과 민간 주도로 제안할 내용은 1) 순천만 갯벌-국가정원-선암사-송광사-낙안읍성-대흥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일이다. 순천 일대의 세계유산을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압도적이며, 거대한 다른 나라의 세계유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순천 일대의 세계유산과 함께 국가유산의 진가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 첫 단계는 순천만 갯벌(세계자연유산)과 선암사(세계문화유산), 송광사, 낙안읍성, 대흥사(세계문화유산)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순천 세계유산 관광 플랫폼 구축

국가유산청의 정책 영역은 상향식으로 지방 및 민간 주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 중심의 법인체를 결성하여 관광 일정과 다양한 예약 및 안내 플랫폼을 운영하는 「KUMANO TRAVEL」(<https://www.kumano-travel.com/ja>)은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 구마노 지방을 중심으로, 기이반도 남부를 커버하는 풀뿌리 여행사이다. 일반 사단법인 타나베시(田辺市) 구마노 여행 뷰로가 운영하는 이 세계유산 관광 예약 사이트는 국제적 수상 경력도 있을 만큼 새로운 관광 개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플랫폼은 현지인들이 제안한 ‘모델 코스’에서 숙소와 선택 관광을 조합하거나 숙소만, 또는 선택 관광만으로도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방문객을 구마노 지역의 현지 숙박 시설, 활동 및 다양한 서비스에 연결해 주고 있다. 지역민은 숙소, 식당, 관광 안내, 해설, 체험 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며,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순천시도 민간 주도의 참여형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외의 방문자에게 교통과 숙박 예약은 물론, 수하물 탁송과 함께 템플스테이, 명상 수련, 한국의 차 문화, 순례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IV.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의 보존과 활용 방안

선암사는 보물 15건, 사적 1건, 민속유산 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문화유산과 민속유산 못지않게 천연기념물 선암매와 함께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될 만큼 뛰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명승으로 지정된 선암사 쪽은 참나무류, 당단풍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노각나무 등의 넓은잎나무들이 울창하여 남부 지방의 전형적인 산림 경관을 절기에 따라 연출한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선암사가 전통 사찰이 지녀야 할 경관적 정체성을 일제강점기와 1976년도의 대대적 조경사업으로 잃었다고 주장한다.⁹⁾ 특히 일본 교토의 대표적인 사찰과 선암사 경내의 우점 수종을 비교한 결과, 일본 교토의 5개 사찰 중 4개 사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동백나무, 삼나무, 편백, 후피향나무, 단풍나무, 치자나무, 식나무 등이 선암사에서 우점종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선암사의 수종 구성이 일본 전통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한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경내 조경은 건물의 마당이나 주변에 나무나 화초를 많이 심지 않았으며, 이러한 전통은 1954년 지허 스님이 출가할 당시에도 선암사에 지켜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6년부터 이루어진 조경 불사 이후 경내 조경 식물의 종수와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경관적 정체성이 일본식으로 훼손되었다고 지적한다.¹⁰⁾¹¹⁾

선암사 경내를 살펴보면 조경 수종과 달리 국내 사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질적인 용재 수종도 자라고 있다. 바로 일제시대에 식재된 삼나무와 편백이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자라지 않는 일본 고유의 용재수종인 삼나무와 편백이 전통 사찰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사찰 운영 경비를 조달하고자 숲 생산에 필요한 임목을 벌채하면서 그 부지에 삼나무와 편백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 선암사 벌채허가원¹²⁾은 그 당시의 상황을 밝히고 있다. 이들 벌채허가원에는 선암사에서 1929년부터 1943년까지 진행된 총 6회의 산림 벌채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오늘날 선암사 경내의 삼나무와 편백의 유래를 증언한다.

9) 홍광표, 하재호. 1998. 조계산 선암사의 식재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6권 3호: 23-33.

10) 홍광표, 김인혜, 이경복, 이혁재. 2020. 선암사에서 발견되는 일본 정원 요소와 작정 기법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권 2호: 31-41.

11) 홍광표 등(2020)의 연구에 의하면 선암사에서 1992년에 23구역의 수목 식재는 총 80 수종이었으며, 팔손이가 가장 많이 식재되었고, 다음 순으로 동백나무, 향나무와 회양목, 아왜나무, 철쭉, 낙엽성 수국, 백당 등이 식재되었다. 총 27종의 식재 수종 중 상록수가 17종, 낙엽수가 10종이었다. 1997년의 식재는 교목이 40종(상록교목 15종, 낙엽교목 25종), 관목이 29종(상록관목 15종, 낙엽관목 14종)으로 낙엽수가 상록수보다 많았지만, 개체수는 상록수종이 더 많았다. 2011년 식생 조사 결과 상록교목 12종, 낙엽교목 19종, 상록관목 21종, 낙엽관목 4종으로 나타났고, 빈도수 10회 이상 수종은 동백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매화나무, 목련, 배롱나무, 벚나무, 서어나무, 은행나무, 참나무, 홍매화, 목서, 식나무, 철쭉 등이었다. 2018년 조사 결과 상록교목 14종, 낙엽교목 14종, 상록관목 13종, 낙엽관목 12종이 식재 수종이었고, 전체적으로 낙엽 26종, 상록 27종. 빈도수 10회 이상 수종은 팔손이, 가시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광나무, 녹나무, 남천, 목서, 팽팽 등으로 나타났다.

12) 정부기록원의 조선총독부 기록물(<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Main.do>)에 선암사 벌채허가원을 검색하면 1929, 1933, 1937, 1940, 1943년에 이루어진 벌채 허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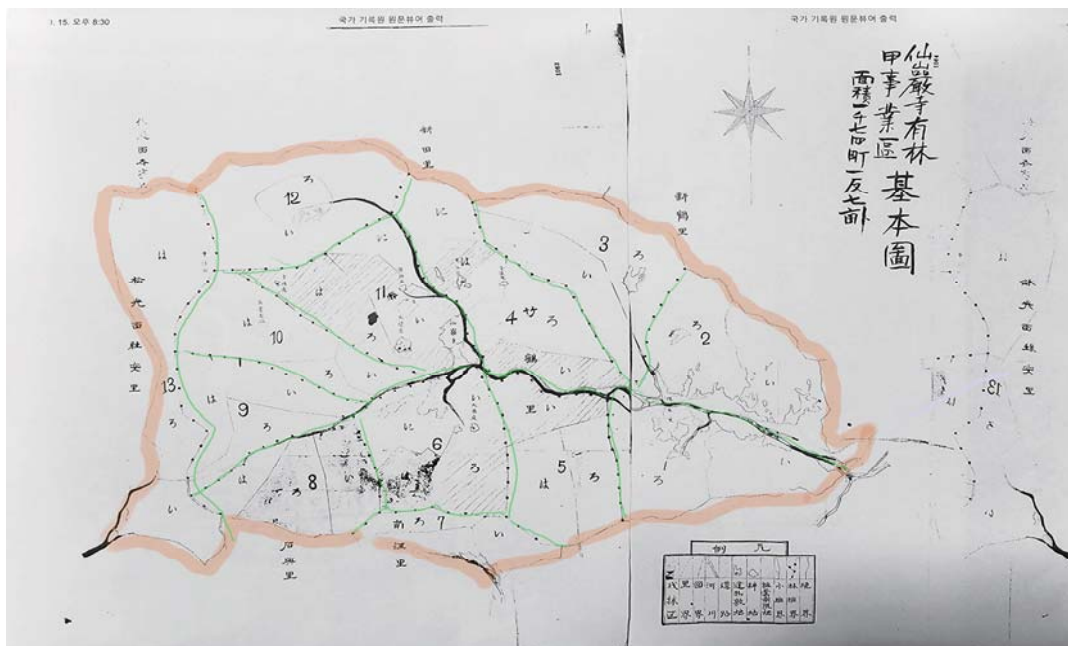
[표3] 일제강점기 선암사 사찰림의 벌채와 조림 현황

허가 년도	벌채			조림	본수
	면적	수종	목적	수종	
1929	11임반 14정보 12임반 59정보 합계 73정보	소나무 활엽수 잡목	조림 및 임야관리	소나무 벚나무	
1933	6임반 16정보 8임반 55정보 합계 73정보	제탄용 잡목	조림 및 임야 관리	상수리 소나무 삼나무 편백	3000 1500
1937	8임반 15정보 9임반 23정보 합계 38정보	제탄용 잡목	제탄생산	삼나무 편백	3000 7000
1940	10임반 49정보	제탄용 잡목			
1943	31정보	제탄용 잡목			

선암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오늘날까지 원지형을 유지하며 선원을 통해 종교 활동을 지속하여 종교적 신성성을 보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이다.¹³⁾

원지형을 유지하며 종교 활동을 전개해 온 명제를 충실히 따르려면, 가람 내외의 일본식 조림수종이나 일본 정원 요소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선암사의 보존은 삼나무와 편백 숲의 장기적인 관리와 더불어, 곳곳의 과도한 조경 식생이나 일본식 정원 양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림4] 조선총독부 벌채허가원에 수록된 선암사 사찰림 기본도.



13) 김경미, 2019. 산지 승원 선암사의 세계유산 가치 연구. 남도문화연구, 36: 91-120. 남도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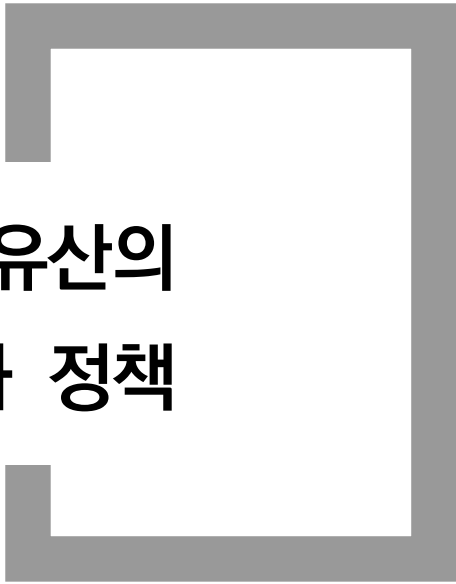
V. 맺음말

전통 사찰에 어울리지 않는 삼나무와 편백의 부조화를 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왔다.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순천시가 세계유산 보유 도시로서의 위상부터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에 합당한 행정 체계 구축과 인적, 조직 정비가 필요하고, 더불어 홍보 체계의 구축도 제안하였다.

이 모든 일을 추진하기 위해 60년 만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지난 5월 17일 개칭한 이유와 그에 따른 시대정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가유산청이 구상하는 정책 방향과 영역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순천시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모두 보유한 드문 도시로서, 이러한 세계유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점, 면, 공간 중심에서 나아가 인간과 문화를 포함한 권역별 접근 방식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순천만 갯벌, 국가정원, 선암사뿐만 아니라 송광사, 낙안읍성, 대흥사까지 하나의 권역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권역별 접근은 숙박, 교통, 수하물 탁송, 체험 활동, 템플 스테이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중국에는 국가유산과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간 참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19. 산지 승원 선암사의 세계유산 가치 연구. 남도문화연구, 36: 91-120. 남도문화연구소,
- 김양숙. 2023. 순천 선암사 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화재청, 2022.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사항 보고. 문화재청
- 성종상, 2021. 자연유산의 개념 및 쟁점 고찰을 통한 발전방향. 문화재행정 60주년 미래전략 토론회. 문화재청
- 이경재, 광정인, 김지석, 정희은. 2013. 순천시 조계산 선암사계곡(선암교~비석거리탐구간) 식생구조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3권 1호:33-34. 한국환경생태학회
- 이은하, 2022.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문화재청
- 정상우, 2022.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기본법 제정 및 법체계 정비. 「국가유산 체제 도입」 국회 정책토론회
- 조용미, 2019. 조계산 선암사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봉호, 김종엽, 염정현, 홍석환, 서민옥. 2011. 순천시 조계산 선암사 일대 계곡부 식물군집구조.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21권 2호: 34-37, 국한경생태학회
- 홍광표, 김인혜, 이경복, 이혁재. 2020. 선암사에서 발견되는 일본정원 요소와 작정 기법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권 2호: 31-41.
- 홍광표, 하재호. 1998. 조계산 선암사의 식재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6권 3호: 23-33.



주민 참여형 유산의 활용과 정책

권재현
(안양대학교)

주민참여형 유산의 활용과 정책

권재현/문화학박사/안양대학교 교수

권재현 Kwon Jae Hyun

- 문화학박사/안양대학교 교수
-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총감독
- 2023-2024 관악강감찬축제 총감독
- 2021-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총감독
- 문체부 글로벌축제 수원화성 자문위원
- 소멸위기 문화적 대응 지역활성화 사업 심의 및 컨설팅 위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심의 및 자문위원



1. 세계유산과 문화유산 활용 사례
2. 연구 사례
3.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사례
 -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성안사람들’
 -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검무팀과 온터”
 - 관악강감찬축제 ‘리틀강감찬’, ‘관악퍼레이드 21’
4. 인터뷰 - 주민참여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
5.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의미
5. 제언

세계유산과 문화유산 활용 사례

1. 국가유산의 이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가치를 지닌 것’

문화유산

- 유형의 문화재(고궁, 불상, 도자기 등)와 무형의 문화재(전통예술, 축제 등)를 포함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모든 유형의 문화적 산물

자연유산

- 산, 강, 해안, 섬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조화로운 경관

무형유산

- 음식, 의복, 공예, 전통기술 등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무형의 유산

*약 360건

<https://www.heritage.go.kr/main/?v=1725479054501>

5

1-1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이해

유네스코(UNESCO)에서 국경을 초월한 인류 전체의 위대한 유산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자연 또는 인간이 창조한 재산으로, 문화적 또는 자연적인 특징을 지닌 지역이나 건축물, 기념물, 풍경 등을 의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16건: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와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

인류무형유산

22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영산제,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제주해녀문화, 씨름, 연등회, 한국의 탈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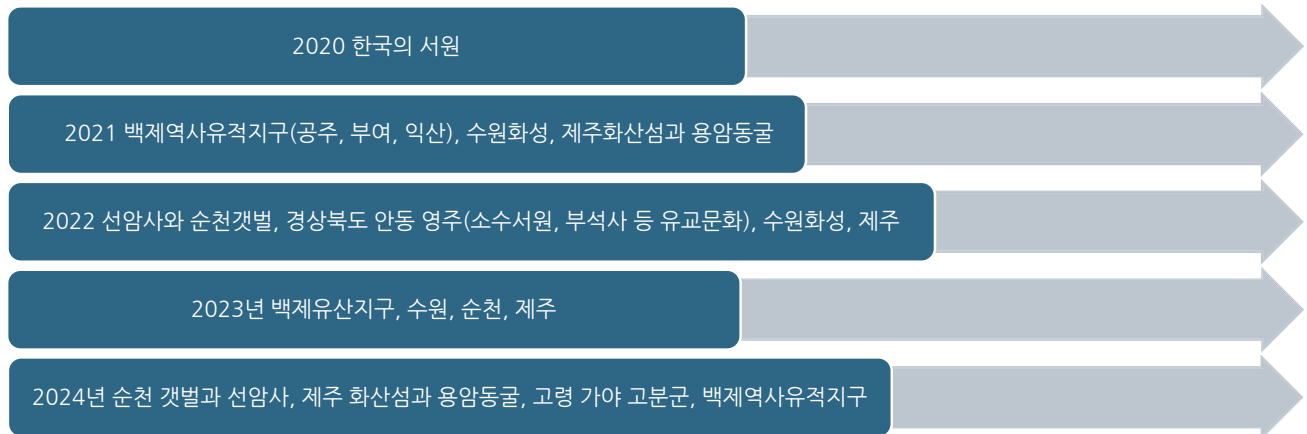
세계기록유산

18건: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계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kbs 특별방송 '이 사람을 찾습니다' 기록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기록물

6

2. 문화유산 활용 사례: 세계유산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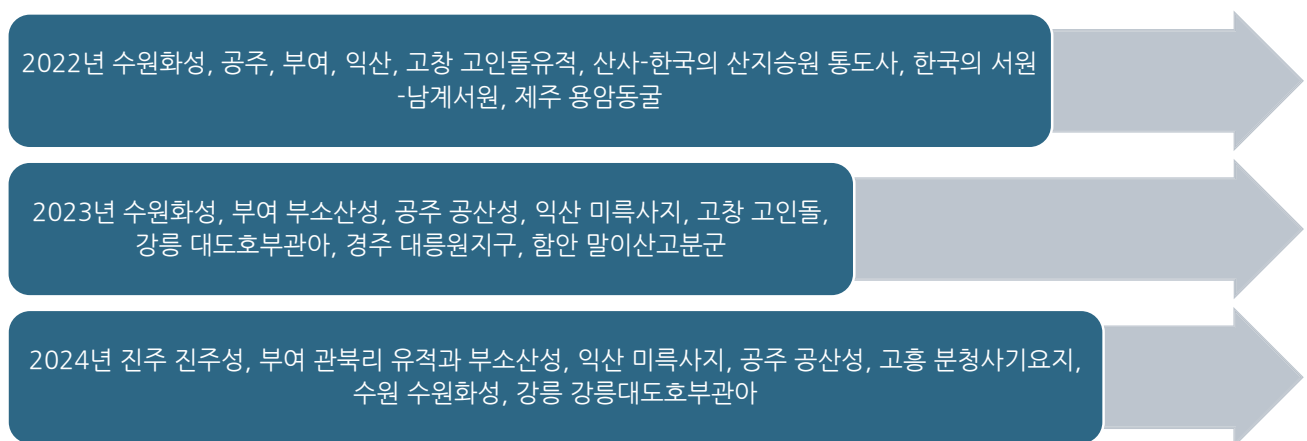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로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



7

2. 문화유산 활용 사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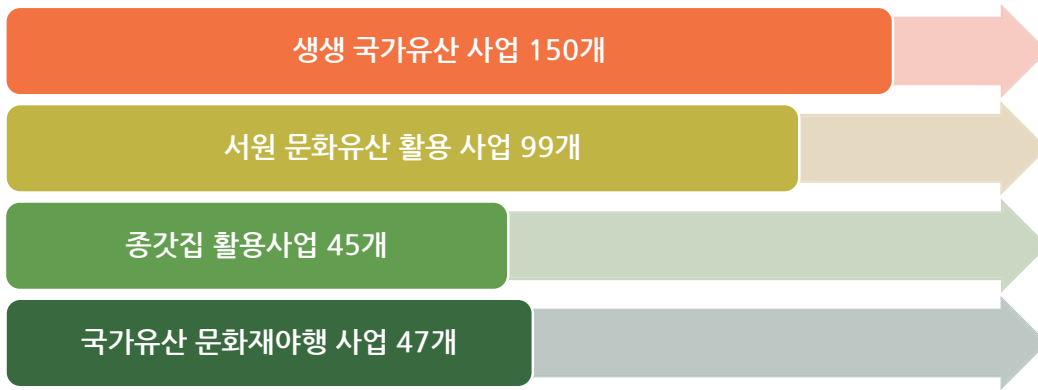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접목하여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고,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문화유산 보존 인식 재고, 문화예술 발전 기여



8

3.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생생 국가유산 사업, 향교 · 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 고택 · 종갓집 활용사업, 문화유산 야행

우리고장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문화유산 보존 인식 재고, 문화예술 발전 기여



2023년 기준

9

4. 국가유산 사업 평가항목

평가항목: 실행계획의 적정성, 콘텐츠 적합성, 교류협력 밀착성, 운영·관리 효율성, 홍보마케팅,
참여 의지·역량, 기대성과

***참여의지 역량:** 수행단체 역량, 수행단체 역량강화 노력도, 지자체 수행 체계성, 지자체 자원 투입 정도,
지자체 사업 관리 정도

****기대성과**

가. 지역 활성화 기여도: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지역경제 기여도, 지역자원 활용도, 지역의 역사자원 연계도,
지역 주체 형성 기여도

나. 관광자원화 활성화: 관광자원화 진척도, 관광상품 개발, 관광 서비스, 자립형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사례

연구 1. 제주해녀 문화와 세계시민 교육

제주 해녀문화는 제주의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보존하려는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을 담고 있다**. 다양한 세계 이슈에 대한 갈등과 이에 대한 조정·해결방법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현대 세계에서 제주 해녀문화 속 공동체의식은 공유와 협력이라는 미래 발전적 가치를 일깨워준다.

제주 해녀들은 상군 해녀들로부터 물질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녀문화에 대한 지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배운다.

공동 작업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공동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바당'이라 불리는 구역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공동체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짓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활동은 해녀와 그 공동체가 가진 연대와 조화의 정신을 증명한다. 제주 해녀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며 삶을 일구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주 해녀문화의 장점으로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 자원에 의존했던 경쟁적 자본주의가 점차 자원 고갈의 위기를 맞이하고,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빈부 격차가 커짐에 따라,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 공유 경제가 관심을 얻으면서, 제주 해녀 문화가 현재의 삶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제주 해녀의 어로 작업은 개인의 경제 활동과 더불어 공유 자원에 대한 이용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되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운영 사례다**.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은 주민들의 정신, 종교, 사고, 역사,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 정체성을 낳는다.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8),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연구 2. 서울시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

문화유산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리

가. 문화유산이 교육이나 학습공간에서 하나의 여가공간으로 점차 **시민생활의 일부로 변화**

나. 문화유산산업은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됨. 자긍심과 친밀도 향상에 도움

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기획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 개선** 라.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출처: 민현석 (2024) 서울시 문화유산산업 현황 진단과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연구 2. 서울시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

문화유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문화유산 관련 활동이 늘어 난 20-30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포토존 설치. 가상 현실 체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교육적이고 즐거운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세분화된 콘텐츠 개발**과 관람형 보다 **문화적 체험**을 통하여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 문화유산과 연계한 복합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특별한 체험 제공: 쇼핑, 식도락, 자연경관 감상, 공연·전시를 보완한 굿즈 개발, 음식 등 무형유산과 도심 주변의 유산을 소재로한 문화공연과 전시 등의 **현대적 수요를 반영한 다른 문화적 체험** 제공
- 주변 유산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유산의 의미 확장**과 브랜딩
- 활동주체(공공·민간·시민) 간 협력 강화**: 공공부문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필요. 인력이나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사전 기획과 모니터링**.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음

출처: 민현석 (2024) 서울시 문화유산산업 현황 진단과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연구 3. 세계유산축전 순천 모니터링 보고서(2024)

순천세계유산축전을 통한 순천시 전역으로 관람객 확산 효과

기존 세계유산축전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으로 타 사업과 차별화

순천세계유산축전을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전달

순천세계유산축전 흥미프로그램 - 유산놀이터

순천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순천세계유산축전

세계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물로 주제성 강화

순천세계유산축전 기대효과 - 지역 홍보 계기 마련

미래세대들에게 세계유산축전의 의미전달 및 인식공유의 장 마련

개선방안

- 평일과 주말 단위 프로그램 운영 전력 필요
- 프로그램별 흥행요소 부각 필요
- 노쇼방지를 위한 연계 전략 필요
- 세계유산참여자 시내 유입 전략 필요
-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 체계적인 안내방안 필요
-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 연구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성안사람들’



Photo by Brian & SoA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연구2: 진주성 미디어아트 ‘지역의 예술가들’ - 칼을 품고 꽃을 피우다



진주검무 100명
극단 온터 20명
작은 진주들 11명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연구3: 관악강감찬축제 ‘리틀강감찬’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례연구3-1: 관악강감찬축제 ‘관악퍼레이드 21’



인터뷰 : 주민참여 지속성을 위한 방안

인터뷰 1. 윤성진 감독(순천정원박람회 ‘실랑계’ 총감독)

순천에서 진행된 사업에서 갯벌과 어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민조직이 있는데 사업 이후에 사라졌다. 공공의 사업으로 진행될 때, **공공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의 자산을 안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순천은 원래 시민조직과 기획이 가장 활발한 동네였다. 프로젝트 진행 이후의 성과의 공유는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정, 지역 문화유산 가치의 인식 확인, 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내적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모든 성과들이 공조직 안으로 흡수되면 **주민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반복되면 더 이상 정책이나 제안이 먹히지 않게 된다.

정책 안에 시민이 있는가? 주민의 효능감을 지속시킬 정책이 있는가? 생활 공간 내에 문화유산을 만나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 금전적인 지원보다 인프라 지원, 지원의 정책화 등이 필요하다. 시민의 활동의 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의 시작부터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공공의 부처간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부처간 중복사업, 비효율성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 행정 안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조직(전문 담당관제)를 만들어 시민과의 연결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다.

인터뷰 1. 윤성진 감독(순천정원박람회 ‘실랑게’ 총감독)

순천은 국가단위 행사 후 시민의 조직 역량이 오히려 약화되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수익이 되는 구조다. 예산을 쫓아가는 행정의 사고로는 시민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비용을 지불하면 관계가 소멸되는 고용의 관계가 아니 협력적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인터뷰 2. 극단 ‘우체통’ 공인식 대표 (수원화성 ‘성안사람들’)

2000년도에 거리극, 인형극, 재현연기 등을 직업배우와 주민배우들의 협업을 통하여 예술활동의 확장성과 기회제공, 그리고 지역관광형 공연을 개발하고 무대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성안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칭하지만, 주변 지역이나 수원전체, 또는 주변도시의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성안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통복식을 갖추고 조선시대를 재현한 연기적인 관광재현배우로서의 역할이 크지만 재능이나 관심분야에 따라 노래, 춤, 마을해설, 안내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투입하여 방문객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에서의 성안사람들 역할은 수원화성을 찾는 방문객들을 환대로 맞이하는 주민들 역할이다. 수원화성은 시대적으로 조선 22대 왕, 정조대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안사람들은 조선시대 성내에 거주하는 보부상이거나 수원화성 축성에 참여 하였던 장인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재현한다.

축전 전 홍보와 방문객 대상 마을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 2. 극단 ‘우체통’ 공인식 대표 (수원화성 ‘성안사람들’)

세계유산축전 3년간의 활동은 성안사람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추진력이 되었다. 축전 이후 문화관광 관련한 포럼이나 워크숍에서의 성안사람들 발표기회가 몇 번 있었고, 외부지역으로의 공연까지는 못하였지만 수원 관내에서는 몇 번의 행사에 참여하여 소규모 공연도 했다. 축전 3년간의 참여를 통해 얻은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민 재현배우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다. 연기는 어렵고 나라는 상관없는 분야라고 어색하게 생각했던 처음의 마음들이 3년 동안 변하고 발전하여 활동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1년중 축제기간에 활동하고 참여 한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계속 활동하고 싶고 계속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또한 목표이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성안사람들은 문화유산지 마을에서의 소중한 자산이다.

유무형의 훌륭한 수원화성의 관광적 가치와 볼거리가 있다하더라도 결국 관광지의 좋고 나쁨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각인 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현주민들의 이미지라 생각한다.

성안사람들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지난 227년간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이 잘 이끌어 와주었듯이 앞으로의 227년은 주민들이 새로운 매력으로 문화유산지 마을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축제기간만이 아닌 1년 365일의 시간을 두고 교육과 연습, 공연 등의 상설화를 통하여 브랜드를 만들고 나아가 방문객들의 체험기회와 주민들의 여가형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인터뷰 2. 극단 ‘우체통’ 공인식 대표 (수원화성 ‘성안사람들’)

기획과 아이디어: 재미와 감동이라는 목표 아래 이벤트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이벤트 보다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지 마을이 간직한 **사실적인 역사성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수원화성의 경우 원형을묘정리의궐, 수원화성성역의궐등의 고서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찾고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한 다른 도서들도 활용하여 현실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성안에 거주하는 단체들, 상인분들의 의견도 취합하여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있다.

지속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

1.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
2. 지역단체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3.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
4. 활동무대를 보장해 주는 공적인 지원과 정책
5. 방문객들의 응원과 관심
6. 자생력
7. 성안사람들이 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연습 및 회의 등)



인터뷰 3. 수원지기 학교 신영주 교장

문화유산 활동에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발성을 갖지 않는다. **자발성은 활동을 통해 나중에 얻게 된다.** 아이들이 세계유산 수원화성에 대한 해설본(대본) 직접 작성하면서 관심에 높아지고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배우는 만큼, 참여를 통해 체험하는 만큼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청소년 지킴이-대학생 지도교사로 연결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가능하다. **어릴 때의 받은 경험을 대학생이 되어 받은 것을 베풀고자 지원하는 일로 연결된다.**

부모님의 변화는 '아이들이 좋으면 좋아한다'는 것이다. 국영수 학원보다 사회참여와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지지자가 된다.

아이들에게 문화유산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즐겁게 뛰어 노는 장소여야 한다.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공공에 바라는 것은 없는 이유가 공공은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먼저 시민의 기획을 인정해야 한다.** 협력 관계로서의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는 것이지 사업은 던져 주는 것이 아니다. 유산의 활용사업은 민간에서 기획해서 공공과 연결되어야 한다. 자율성이 없이 지시를 받으면 의도가 살아나지 않는다. **유산과 사람이 공존하는 유산 중심에서 삶(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지역에서 협력의 관계를 통해 상시적 교육이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인터뷰 4. 하정아 (세계유산축전 전문가 모니터링)

세계유산의 본질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 내에서 문화적 행위가 꾸준히 일어나는 데 있다.

제주도 유산마을 사람들은 실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지지와 시민들의 관심이 이 불편함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시민들의 활동은 서투르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산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 국가적 행사를 위해 **동원된 주민이 아닌 자발적 참여의 동인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호스트가 누구인가? 이번 제주도 축전 개막식에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만들어 온 500인분의 음식이 손님에게 제공되었다. **호스트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뷰 4. 하정아 (세계유산축전 전문가 모니터링)

앞으로 유산 마을을 지켜야 할 존재인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 유산마을의 주민으로서 유산을 대하는 경험이 체화되어 스스로 유산을 지키는 주민이 될 수 있는 경험 자산을 물려줘야 한다.

이는 유산을 대하는 태도, 지역 유산에 대한 가치 이해,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일상을 통해 발현되게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의미

참여의 경험이 만드는 자긍심과 정동, 소속감, 주체성 형성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삶에 대한 존중의 방식

지역의 자산으로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

경험 자산을 토대로 한 지역 인재 양성 기회 제공: 후배-미래 세대와 연결

지역 이야기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제작

지역의 행정과 시민이 가장 호응하는 일

주민의 세금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문화적 방식

지역 문화기획자와 예술(가) 작품 발표의 기회와 고용 창출

더 나은 문화, 새로운 문화와 만나는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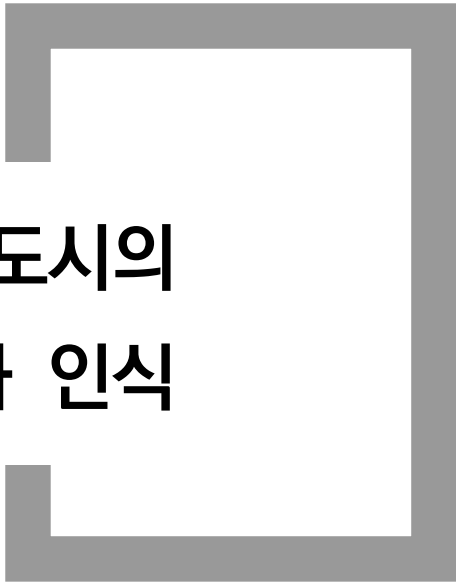
지역소멸 문제의 문화적 대응: 정주민구-관계인구

제언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 ->

자연의 시간과 지역민의 삶이 만들어 낸 유산



세계유산 도시의 시민역할과 인식

허 권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세계유산도시의 시민 역할과 인식

허 권

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 사무총장

문화공존 대표

목 차

- I. 들어가는 글
- II. 지역문화자원 가치 영역
- III. 평화와 발전을 위한 유산 보호 운동
- IV. 유네스코의 유산관련 협약
- V. 세계유산도시의 3가지 인식방향
- VI. 세계유산제도 이해
- VII. 한국의 세계유산
- VIII. 지역과 함께 하는 세계유산 보호 사례
- IX. 순천 지역공동체의 과제

I. 들어가는 글

한국에서 세계유산의 위상은 매우 높다. 다른 어떤 지역의 문화 콘텐츠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1995년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판전, 종묘 3점이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중앙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은 세계유산이 갖고 있는 글로벌 슈퍼 브랜드가치에 주목하였다. 한국은 2024년 현재 문화유산 14점, 자연유산 2점을 올리고 있는 중급 수준의 회원국으로 올라서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일본, 호주에 이어 많은 숫자이다.

최근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세계유산과 관련된 축제, 문화행사와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 축하 행사가 개최되고, 등재된 지 5, 10년 되었다고 기념 축제를 열고, 지역관광 정책, 유산활용 사업과 연계되어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없지만, 한국의 행사 숫자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등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싶다. 행사의 양적 팽창이 세계유산의 질적인 발전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 보호, 홍보, 활용, 교육 등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의 유네스코 유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에서의 세계유산의 보호와 활용사업의 기반을 조성 중에 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집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세계유산 ODA사업까지 날로 확장하면서 세계유산 기여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이런 뜨거운 열기가 조성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분석자료를 보면 우선 한국사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갖고 있는 브랜드 홍보 가치를 크게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선양효과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는 아닌가? 유산경제학, 문화재관리학, 관광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 전략을 제시하는 많은 보고서가 발행되었지만,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통계와 분석자료가 많지 않은 점이 유감이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대부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과 운영지침에 근거한 세계유산학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왜 보호하는가? 왜 세계유산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는가? 우리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시민은 세계유산을 통해 경제적 이득과 문화적 복지를 받고 있는가 등등의 물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론적이고 애매모호한 설명만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는 기본적으로 3개의 질문에 충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세계유산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세계유산이 무엇인지? 배경과 목적, 그리고 보호방식에 대해 기본교육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급적 상세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였다면 지역사회와 세계유산과의 관계는 더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둘째, 시민들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접근성,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박물관교육, 역사교육, 유산교육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해당 유산의 역사, 특징, 가치에 대해 소상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세계유산을 통한 미래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훈련과정이 있는가? 지역사회는 세계유산의 활용에 대한 참여적, 창조적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 도우미, 안내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산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 즉 거버넌스 구축 교육도 필요하다.

현재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약40여 지자체들이 저마다 세계유산을 대상으

로 적지 않은 행사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내실이 있는 행사가 없지 않지만 대부분 보여주기 식의 행사용 행사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행사의 홍수 속에서 순천은 어떤 차별화 정책을 쓸 것인가 진지하게 물을 때이다.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순천은 지역주민과 함께 미래지향적 전략을 추구할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II. 지역문화자원의 다양한 가치

모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나름대로 보호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치는 존재 이유이자 생명력을 유지해 주는 바탕이다.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가치를 정의할 때 두 가지의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도덕규범, 규칙 또는 어떤 행위에 대한 정신적 의미로서의 가치, 둘째, 어떤 유무형의 질적 특징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산에 대한 가치는 둘째 정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의 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단체들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많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법적 보호를 해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이에 크게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있다. ‘사회문화적 가치’ 항목에는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사회성, 정신적 신앙적 가치, 심미적 가치가 포함되며, ‘경제적 가치’ 항목에는 유용성, 시장성, 존재성, 선택적 가치 등이 포함된다.¹⁴⁾

[표1]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분류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역사성 (Historical)	유용(시장)성 (Use (market) value)
문화적/상징적 (Cultural/symbolic)	비유용(비시장)성 (Nonuse (nonmarket) values)
사회적 (Social)	존재 (Existence)
정신적/신앙적 (Spiritual/religious)	선택 (Option)
심미적 (Aesthetic)	유산(Bequ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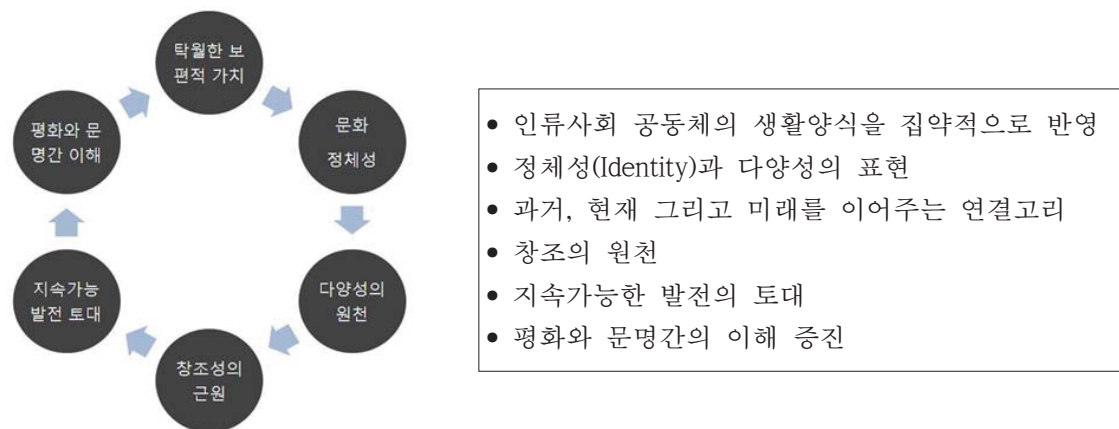
표에서 나타난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의 어려움이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관점에서 볼 때, 세계유산만이 중요한 자원은 아닐 것이다. 지역을 지역답게, 다양성이 존중되며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치가 우선일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관찰과 관심, 분석이 있어야 한다.

14) Randall Mason, “Assessing Values in Conservation Planning: Methodological Issues and Choices,” Assessing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2

Ⅲ.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유산 보호 운동

유네스코는 유산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으로 보고 있다. 유산은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소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생물학적, 무기적 생성물로서 과학상, 보존상 또는 자연 경관상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그림1] 유산의 다양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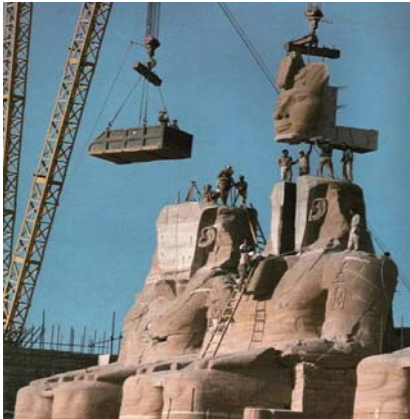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 10월24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창설되고 이어서 유네스코(UNESCO)가 1945년 11월16일에 설립된다. 유네스코는 창설 즉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적지 보호 사업을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1959년 아스완댐 (Aswan High Dam) 건설로 누비아(Nubia) 유적이 수몰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유네스코는 회원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누비아의 침수는 인류문명의 치명적인 손실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1968년부터 독일 등 일부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누비아의 아부심벨(Abu Simbel) 유적을 5년 동안 작업을 거쳐 높은 위치로 이전 복원하는 대역사를 완수한다. 원래의 신전 대리석을 20톤 정도의 블록으로 잘라 강에서 200m 안쪽으로, 61m 위쪽으로 옮겼다. 약 50개국에서 기부한 재원을 포함하여 총 경비만도 8,000만 달러가 들었다. 그 당시 이집트는 누비아를 살릴 수 있는 인력과 재정,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국제적인 보호캠페인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다. 누비아 유산 보호사업은 국제 차원의 유산보호 운동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부심벨 이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유네스코는 이탈리아의 베니스

Venice, 파키스탄의 모엔조다로 Moenjodaro, 인도네시아의 보로보도르 Borobudur 유적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보존운동을 이어갔다. 이 기간 동안 베니스에서 역사기념물 분야의 건축가와 기술자들이 회동하여 문화재 보호 기본원칙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가졌고 이러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1964년에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중요한 일반원칙들을 담은 ‘베니스헌장’이 마련되었으며, 이 문서는 향후 「세계유산협약」의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사진1] 아부심벨의 해체·이전 모습



[사진2] 아부심벨의 원위치와 이전위치를 보여주는 모형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로 파괴된 많은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상호불신과 대립을 넘어 인류의 평화를 지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류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평화’와 ‘발전’의 염원은 세계유산 사업의 기본철학이 되었다.

※인류 유산의 파괴 요인(ICOMOS 보고서)

-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산불, 홍수, 기후 변화
- 과도한 개발정책: 인구 이동, 주택, 도로, 공장 등
- 무계획적, 적절치 않은 관광진흥정책: 산업화, 지역공동체 붕괴
- 전쟁, 갈등, 분쟁
- 관리 소홀, 법적 기술적 능력 부재

IV. 유네스코의 유산관련 협약

유네스코는 지적 협력을 촉진하는 유엔 전문기구의 하나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인류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현재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담당부서에서 분산되어 있으나 이중 문화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계유산사업”이 가장 널리 알려진 사업이다.

[표2] 유네스코 유산관련 사업

문 화	세계유산사업	「세계유산협약」	부동산유산	창덕궁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사업	「무형유산보호협약」	무형문화재	판소리 등
	창의도시사업		디자인 등 7개 분야	서울, 이천, 부산 등
커뮤니케 이션	세계의 기억사업		기록유산	직지, 조선왕조실 록 등
자연과학	인간과 생물권보호 (MAB)사업		자연유산	설악산 등
	지질공원 GeoPark사업		지질	제주도 등
사회과학	지속가능한 역사도시		도시역사성 보호	

유산의 1차적 보호책임은 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 및 기술력이 떨어지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해당 국가가 이를 잘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인류의 소중한 유산은 모든 국가가 함께 보호하고 누려야 하는 공유유산(Common heritage)이기에 무엇보다도 국제규범을 통해 국가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협약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유산 관련 협약을 제정하였다.

- 전시 문화재 보호협약(헤이그협약), 1954, 한국 미가입
- 문화재 불법밀반출 및 소유권 양도 금지에 관한 협약, 1970, 한국 가입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세계유산협약), 1972, 한국 가입
- 수중 문화재 보호협약, 2001, 한국 미가입
- 세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003, 한국 가입
- 문화적 표현다양성 보호 및 진흥협약(문화다양성협약), 2005, 한국가입

한국은 이 중 4개의 협약을 조인하였다.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으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 이해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도 가까운 시일내 인준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중문화재보호협약」은 고대, 중세기간 중 활발한 교역이 이뤄졌던 유럽, 카리브해 지역국가들이 다수 가입하고 있고, 「유엔 해양협약」과 깊은 연관이 있어 아직 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림2]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전서문화재보호, 기록유산, 인간과생물권 엠블렘.



V. 세계유산도시에서 가져야 할 3가지 인식방향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유산협약」에 의거 매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선정하는 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의 3개의 종류가 있으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최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많이 등재시키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과 자연재해로 파괴되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산 등재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산등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유산의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세계유산제도와 보호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을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결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1) 세계유산제도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해
- 2) 유산의 내재된 가치
- 3) 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창의적 응용력

[표3] 유산의 핵심가치 공유영역

세계유산제도	유산의 가치	보존관리 활용의 중요성
인류공동의 유산 • Heritage for All • Common Heritage of Humanity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관광
보호철학	진정성, 완전성	지역공동체의 참여
문화다양성	역사적 상징성	유산활용의 콘텐츠
개발,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비교(역사, 환경, 문화, 사회)	

Ⅵ. 세계유산제도 이해

지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 실행,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유산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4년도 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총 1,223점으로 문화유산 952점, 자연유산 231점, 복합유산 4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 현황을 보면 이탈리아(60), 프랑스(53), 독일(54), 영국(35), 스페인이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중국(59), 인도(43), 이란(28), 일본(26), 그리고 중남미권에서는 멕시코(35), 미국(26)이 많은 유산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16점으로 문화유산 14점, 자연유산 2점이 등재되었다.

1. 정의

「세계유산협약」(1972)에 의거 선정된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문화, 자연, 혼합)으로 매년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검토되는 유산은 사적, 기념물, 건축물군, 문화경관 등 부동산유산을 이며, 혹시 나중에 유동적인 유산이 될 수 있는 동산유산은 애초부터 배제하고 있다. 즉 신라금관, 고려자기, 금속활자 등과 같은 동산문화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 세계유산 종류: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
- 등재형태: 단독등재, 연속등재
- 목록: 세계유산 목록, 잠정목록,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
- 문화유산: 기념물, 사적, 건축물군, 문화경관
- 자연유산: 지질 지형학, 생물학, 생태학 관련 유산

2.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협약」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 OUV의 규명은 보는 관점에 따라, 학문적 결과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 분야의 학문결과에 입각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된 결과가 유산 OUV를 규명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그러나 OUV를 입증하는 데 유의할 점이 있다. 연속유산으로 신청할 때 이에 포함되는 대상 유산이 너무 많을 경우, 각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밝히는데 매우 많은 시간과 과도한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작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OUV가 떨어지는 유산은 과감히 제외하며, 시대 구분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치 평가 항목

가.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모두 10개 항목이며 (I)에서 (VI)은 문화유산, (VII)에서 (X)은 자연유산의 항목이다. (vi)항목은 타 기준과 함께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4] 세계유산 선정기준 분류표

기준	내 용	적용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문화유산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V)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VI)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자연유산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나. 진정성

세계유산, 특히 문화유산의 존립 근거는 이 진정성(authenticity)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유산 제도의 밑바탕이 된 “베니스헌장” Venice Charter¹⁵⁾에 이미 이 개념이 등장한 바 있고, 「세계유산협약」에서도 중요한 개념과 제도로써 다루어져 왔다.

15) 1964년 채택된 헌장으로 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 ICOMOS 창설의 근간이 되었다. 유럽의 석조문화재에 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아시아의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선언문(일본 나라)을 채택하였다.

유산의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기타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에 관한 진실되고, 신뢰성있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다. 완전성

완전성 (integrity)는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적정한 규모인가?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

라. 비교연구

실제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적어도 3-4점의 유사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유산의 유산적 특성, 탁월한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 동일 문화권의 유산뿐 아니라 타 지역 유산과의 비교도 필요하다. 답사, 현지조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비교한다.

마. 보존관리계획

유산의 보존관리계획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lan)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사실상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전에 세계유산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4.. 목록

운영지침 제52항 “협약은 관심, 중요성 또는 가치가 큰 모든 유산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탁월한 엄선된 목록만을 보호하고자 한다.” 즉 국가/지역 차원의 중요성을 지닌 유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 3가지 목록을 통해 유산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 세계유산목록: 매년 30여점이 추가되고 있다
-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하기 전 최소 1년 전에 등록시켜야 한다.
- 위험에 처한 목록: 전쟁, 개발, 자연재해 등. 대응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되고 결과에 따라 특수관리되며 긴급 세계유산 기금이 지원된다.
- ◆ 퇴출유산: 오만의 아라비아 오릭스 영양 서식지(2007)-공업단지 조성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강 경관지구(2009)-교량설치
영국의 리버풀 항만경관지구(2021)- 에버튼FC축구장 등

5. 전략목표 5 Cs

- ◆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 강화
- ◆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보장

- ◆ 당사국의 효과적인 역량구축(Capacity-building) 촉진
- ◆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참여와 지지 향상
- ◆ 세계유산협약이행에 있어 공동체(Communities)의 역할 증대

위의 5가지 목표는 세계유산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특히 공동체의 역할 증대를 중시하고 있다.

6. 협약의 특징

가. 유산보호를 위한 강제성을 지닌 국제협약

- 국제법상 협약에 가입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 현재까지 독일, 오만, 영국의 유산이 퇴출되었다.
- 유산의 1차적 보호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권을 가진 국가에 있다.
- 등재 당시의 보존환경을 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분 변경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

나. 유산보호는 글로벌 공동책임

- 문화 및 자연유산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이의 퇴락, 소실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한다.
- 세계유산기금(유네스코 국가 분담금의 1%)의 조성 및 지원: 교육 훈련, 보호 제도, 시설 장비, 관광 활용 등
- 한국은 G20 일원으로 재정, 시설, 장비,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기여국

다. 유산보호 네트워크 가동

- 세계유산 관련 기구와의 협조가 촉진되어야 한다.
 - ICCROM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 IUCN 세계자연보존연맹, ICCROM 국제기념물 유적 보존센터 등
 - 카테고리 II센터 등

World Heritage Institute of Training and Research for the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HITR-AP, 중국)

Arab Regional Centre for World Heritage (ARC-WH)

- International Centre for Rock Art an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n the Economics of Culture and World Heritage Studies
- Centre on World Na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Training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인도)
-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한국)

- Regional Centre for Human Evolution, Adaptations and Dispersals in South East Asia (CHEADSEA, 인도네시아)
- International Centre on Space Technologies for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HIST, 중국)

라. 지속가능한 발전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2030>과 관련하여 기후의 변화,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의 영역도 보존관리계획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협약 운영지침 제119항 활용조항과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활용’은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이해, 공감에 기초하며 구성원간의 파트너십,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헌신에 기초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 UN 2030 아젠더(환경, 경제, 사회, 기후변화 등)에 관련된 가치의 공유

마. 전수가 아닌 가치의 공유

세계유산사업의 최대 목표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시키는 것이다. 협약 제4조는 ‘모든 협약가입국은 자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 보존, 활용하고 자라는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자국에 주어진 최우선의 의무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전승’이란 물리적 보존, 정신적 가치, 사회적 관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의 공유는 가치의 공유와 다른 방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치의 전수’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소통의 과정이지만(문화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함) ‘가치의 공유/확산’은 아래로 위로 소통되는 상향식, 민주적 과정이다.(문화민주화의 요소)

- 인간 중심의 보호 People-centred preservation
- 지역중심의 보호 Community-based preservation

바. 유형무형유산의 통합적 시각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제정됨으로써 지역문화의 보호는 유형과 무형의 통합적 시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사람과 역사가 배제된 유적지는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박제화된 유산에 불과하며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로의 역동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지역사회, 공공단체는 유무형 유산의 통합적 시도,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VII. 한국의 세계유산

1. 세계유산

한국은 2023년 현재, 자연유산 2점, 문화유산 14점 등 모두 16점의 세계유산을 등재 시키고 있다.

[표5] 한국의 등재유산 현황(2024년 기준)

명칭	선정 기준	년도	사유
종묘	iv	1995	제례문화의 대표; 전통이 살아있는 유산
해인사 장경판전	iv,vi		장경판 보존을 위한 특수가옥 구조
석굴암·불국사	i,iv		불교문화의 대표적 건축양식
창덕궁	ii,iii,iv	1997	건물배치, 건축양식의 독특성
수원화성	ii,iii		신도시개념의 접목; 화성의궤
경주역사지구	ii,iii	2000	고대 왕도의 도시구조
고창·화순·강화고인돌	iii		청동기시대의 장묘문화 상징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vii,viii	2007	용암동굴의 구조, 생태계 보존양호
조선왕릉	iii,iv,vi	2009	장묘문화, 풍수사상, 살아있는 무형가치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양동	iii,iv	2010	풍수지리, 양반마을, 무형유산
남한산성	ii,iv	2014	임시수도, 도성방어
백제역사지구	ii,iii	2015	부여 공주 익산의 유적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iii	2016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7개 사찰
한국의 서원	iii	2019	소수서원 등 9개 서원,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
한국의 갯벌	x	2021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가야고분군	iii	2023	대성동, 말이산, 옥전동, 지산동, 송학동, 유곡리와 두락리, 교동과 송현동 등 7개 고분

한국이 올린 유산은 주로 문화유산이며 <조선왕릉>, <고인돌>, <백제역사지구>, <산사>, <서원>, <갯벌>, <가야고분군> 등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어 현재 여러 지방 도시에서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유산으로 올라간 한국의 유산에서 성곽유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경주역사지구>에 포함된 명활산성, <수원화성>, <남한산성>, <백제역사지구>의 공산성, 사비산성 등이 있으며 잠정목록엔 <중부내륙산성>, <조선 수도성곽과 방어 산성>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 한국 세계유산의 성격을 살펴보면 능 관련 유산이 상대적으로 많다. <고인돌>, <경주역사지구>내 대능원, <백제역사지구>내 무령왕릉, <조선왕릉>, <가야고분군>등이 있다.

한국의 세계유산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곽도시나 마을과 같은 정주유산 定住遺産이 많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마을(하회 양동)> 1점이 있고, 잠정목록에는 <낙안읍성>, <외암마을> 등 2점만 올라가 있어 유럽국가 등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곽 유적은 많지만, 정주유산 즉 마을 혹은 성곽도시로 분류될 수 있는 유산의 수는 적다.

2. 잠정목록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가 있는 한국의 후보 유산도 적지 않다. 현재 14점의 잠정유산이 있는데 1994년 맨 처음 신청한 유산 중에 <강진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중부내륙산성>이 아직 세계유산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중부내륙산성>은 원래 <삼년산성>으로 올라갔으나 진정성의 문제로 등재되기 어려워 충북, 경북의 일부 산성을 새롭게 편성한 <중부내륙산성>으로 개명하였다. 최근에 <양주 회암사지>, <한국전쟁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갯벌 추가> 지역이 새로이 올라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 갔다.

이밖에 각 지자체가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준비하거나 추진 중인 유산은 문화유산 54점, 자연유산 18점, 복합유산 5점에 달한다.

[표6] 한국의 잠정목록 2024년 기준

명칭	신청 연도	비고
강진도요지	1994	강진, 부안, 해남 2020년 연속유산 추진 발표 <고려청자요지>로 개명추진중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1994	신청취소
남해안 공룡화석지	2002	신청보류
울산반구천 일대 암각화	2010	2024년 신청서 제출목표
중부내륙산성	2010	삼년산성의 확대
염전	2010	
우포늪	2011	
외암마을	2011	재추진중
낙안읍성	2011	순천, 서산, 진주, 고창 2022년 연속유산 추진 합의 <조선읍성>으로 개명추진 고려
조선 수도성곽과 방어산성	2012	신청서 준비중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정대>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2017	우선등재유산을 목표로 준비중
양주 회암사지	2022	
한국전쟁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2022	
여수, 고흥, 무안 갯벌 추가	2023	기존 <한국 갯벌> 추가 확대

VIII. 지역과 함께 하는 세계유산 보호사례

세계유산과 그것이 존재하는 도시,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삶에 주목하며 세계유산도시의 공존과 발전을 ‘지속가능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상호작용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쇼윈도 시장으로 변모하는 세계유산도시

세계유산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상업 행위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외부 상업자본의 유입, 외지인의 증가로 인한 정체성이 훼손뿐 아니라 과도한 관광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부작용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시라카와고 세계유산 마을주민은 전통마을보존 주민헌장 3대 원칙을 지켜감으로써 전통촌락마을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 . No Rent 대여하지 않는다.
- . No Sale 매매하지 않는다.
- . No Change 고치지 않는다

[사진3] 시라카와고 촌락



[사진4] 호이안의 세계유산 보호지역 가게



2. 과잉 관광 (over-tourism)의 피해

베니스, 바르셀로나, 아테네 등 세계적으로 유명 명소에 과도한 관광객이 유입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캠페인, 관광객 수의 제한, 시간의 통제, 관광세의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더욱 심화될 뿐이다. 한 마디로 세계유산 브랜드 가치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과도한 외지인의 유입은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영향을 끼친다.

[사진5] 파르테논 신전의 관광객



- 베니스 : 이 도시는 입장세 5유로(비숙박자), 휴가세(숙박자)를 관광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2024. 4.25. ~ 7.14일 사이에 1인당 5유로의 관광세 수입으로 약 33억2천 만원을 징수했으나 45만명의 인파로 관광청은 앞으로 1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인구는 5만5천명에 불과하지만 일평균 방문객은 1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세금들은 도로보수, 교량수리, 쓰레기 처리, 유적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집행된다. 이탈리아 다른 도시 로마, 피렌체도 입장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2023년 베니스를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올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바로셀로나 : 주택 임대료의 상승, 소음공해,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주민의 반대 캠페인이 거세게 일어나 신규호텔 건설 금지, 단기 임대 제한 등의 조치. 숙박시설에서 관광세를 인상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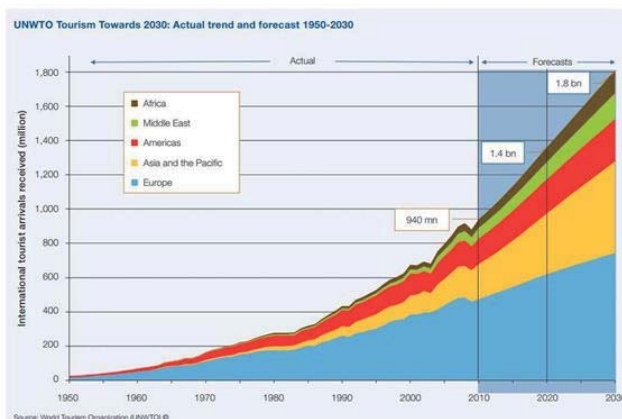
- 맞추픽추 : 유적지 훼손, 환경파괴, 인프라 과부하 등의 문제로 1일 입장객의 수를 2,500명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운영, 사전예약 필수, 관광객의 분산. 3700미터 고지의 공항 건설 반대

- 교토 : 2018년부터 200~1,000엔 숙박세 도입. 관광객 분산, 단기임대 규제, 관광객 행동지침 제정

- 아그라 타지마할 : 일평균 5만명 입장. 년 700만명, 체류 3시간제 도입. 호텔 숙박시설 증가로 녹지지역 용도변경, 공기오염. 매주 금요일 휴관. 외국인 입장권 1100루피(약 17000원)

2022년 이후 코로나19가 물러서자 세계관광시장은 그 이전의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 UNWTO는 2020년 14억명의 관광객이 2030년에는 18억명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관광지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편차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관광산업은 전세계 GDP의 10%를 점할 것이고 10명중 1명은 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한다.

[사진6] UNWTO의 세계관광추세 1950~2030



3. 예술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세계유산도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잘츠부르크, 그라츠 등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지역의 전통 예술, 공예, 미술, 조각을 통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마르도 예술과 유산을 접목하는 대표적 도시이다. 세계유산 바우하우스가 있는 곳, 대문화인 괴테와 쉴러가 태어난 곳, 철학자 니체, 작곡가 리스트가 활약한 곳이다. 이런 도시들은 과거 유산을 통해 미래가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창조적 공간과 콘텐츠를 생산해 가는 기지로서 지역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사진7] 오스트리아 그라츠



4. 창조적 문화관광 선호 추세

단순한 유적지 방문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와 학습의 경험을 통해 관광지에서 창조적 역량을 증진하는 관광의 형태(Gref Richards)가 늘어가고 있다.

수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 관광의 패턴이 변하고 있고, 더 창조적인 장소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전통적 문화관광 개념은 마을촌락 방문, 세계유산 지역, 역사 도시 방문이 주를 이루지만 창의적 문화관광은 축제와 카니발 참가, 예술 활동 참여, 빌바오, 글라스도 와 같은 예술도 시를 방문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5. 축제로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

모든 세계유산은 축제를 통해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난다. 잘 기획된 축제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서로 교감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문화적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축제는 삶의 축제이며 인간의 내재한 감정을 발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 필리핀 비간(스페인 계획도시, 롱가니사 축제), 말레이시아 페낭축제, 라오스 루앙프라방(연등제, 왓푸축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제음악축제
- 영국 에딘버러 (예술축제, 매7~8월, 연 11억 파운드의 경제가치, 밀리터리 타투, 예술축제 등, 관광); 관광객 분석- 43% 지역주민, 18% 스코틀랜드, 21% 영국, 17% 외국, 평균 8박

[사진8] 에딘버러 축제



[사진9] 선정릉 문화거리축제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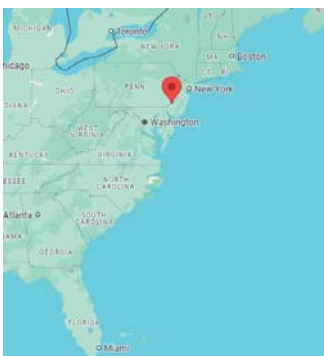


6. 시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과 알뜰 축제

UNWTO는 2022년부터 자연생태 관광의 하나로 대표적 산골 마을을 선정해 오고 있다. Best Small Village Tourism AWARD를 시상하고 있다. 한국의 퍼플섬, 하동 평사리 마을, 고창 운곡마을, 화순 모산마을 등의 마을이 목록에 올라가 있다. 지역 주민과 외지인이 직접 소통하면서 체험과 힐링을 수용하는 대신 시골 주민들은 경제적 이익과 소득 증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 주도가 대다수인 세계유산 축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된 자율적 관광 축제가 그것이다. 서울시 강남구 주민들이 선정릉을 중심으로 차 없는 문화거리 축제를 2024년부터 봄, 가을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다. 관의 주도가 배제된 주민 스스로 자치 기구를 통해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7. 미국의 첫 세계유산 도시 필라델피아: 시민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유산 운동



필라델피아 역사 지구는 1979년 미국이 첫 번째로 등록시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곳은 1776년 7월4일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으로 미국사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델라웨어 밸리 지역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156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 중심도시 중의 하나인 이곳에 세계유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필라델피아 협회 Global Philadelphia Association, GPA가 있다.

이곳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세계유산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꿔나가는지, 협회의 사업들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큰 자극을

주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협회는 2015년 미국의 첫 세계유산 도시로서 4개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유산 보호와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있다.

○ 행동강령

1) 우리 필라델피아의 역사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자랑스러워하자.

Preserve and celebrate Philadelphia's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2) 세계유산 도시 인식과 책임감을 배양하자.

Build World Heritage City awareness and ownership

3) 글로벌 미래 세대를 참여하고 교육시키자.

Educate Global Kids with Roots

4) 필라델피아의 글로벌 번영에 이바지하자.

Extend Philadelphia's Global Reach

필라델피아의 사례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한국의 세계유산 도시들이 이러한 강령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세계유산 조례는 세계유산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 필라델피아처럼 정신적, 상징적 가치를 띤 것은 아니다.

① 주요 사업 방향

□ 출판 사업

이 협회는 매년 주요 사업을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자료집도 제작해 오고 있다. 특히 활동 보고서는 회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기업, 단체, 정부의 후원금을 걷는데 매우 중요한 책자이다.

- 활동보고서, WHC안내 영상자료 28분, 세계유산 칼라북 (5~11세) 등

□ 대외협력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세계유산 신청서 작성의 지원 등 전문적인 영역에도 손을 대고 있다.



- 우크라이나 유산 돕기

- 모리비안 유적(베들레헴 유적)의 연속 세계유산으로 추진(유럽 3개소 연합)

- 이웃 세계유산 도시 알아보기. World Heritage * Our Heritage: 최근 텍사스의 산 선교지 San Antonio Missions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 중.

- 세계유산 주간, 세계유산의 날, 세계유산 필라델피아 로고 제작
 - 세계유산 주간 World Heritage Week. 5월 마지막 주. 그리고 목요일은 세계유산 지정 축하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유적지 탐방, SDG 벽화 방문, 어린이 축구대회, 각종 공연, 아프리카 날, 글로벌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등을 이 주간에 개최하고 있다.



- 세계유산 도시 대향연
 - 세계유산도시기구(OWHC)에 가입한 도시로서 OWHC가 지정한 세계유산도시 연대의 날인 9월8일에 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지역발전에 헌신한 지도자 명예전당 헌화; 전야제(시민, 상공인, NGO 단체, 시당국, 교육기관 등의 참여), 명사 초청 강연(최근 아만다 고르맨 일리 벨쉬를 초청)
- 세계유산 필라델피아 로고
 - 이 협회는 세계유산으로서의 자긍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자체 로고를 제작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가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단 영리 목적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② 시민과 만들어가는 재미있는 사업

- 우리 지역 명소 찾아 배우기 Learn Our Philly Heritage: 시내 역사적 명소 67개를 지정하고 각 명소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 행사개최, 관광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아울러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 세계유산 효과 조사분석: 협회는 세계유산 도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경제, 관광, 숙박, 부동산, 마케팅 분야의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잘 관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세계유산 지정은 근방의 토지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 필리 칵테일 행사, 필리 조이 즐거운 필라델피아
지방 술을 조제한 칵테일 제조대회, 홍보사업. 이 특별사업은 협회가 OWHC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후원과 회원제도
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사업 결과의 투명성, 공익성을 주요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런 기초하에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모집, 기부금 활동을 하고 필라델피아 세계유산 도시 로고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한 마디로 협회는 여러 사업을 통해 필라델피아는 세계유산+즐거운 도시+살고 싶은 도시+세계로 열린 창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즐겨 도입되고 있는 문화재활용 사업의 단계를 넘어 시민운동,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략적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다.

IX. 순천 지역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순천시는 2018년 한국의 산사(선암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2021년 갯벌(순천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 50여 개 중 유일하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함께 보유하게 된 지역이다. 그리고 낙안읍성이 2001년 잠정 목록에 반영되어 곧 세계유산 신청을 서두를 예정이다. 지난 30여 년간 순천시민과 순천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시로 변모하였다.

아울러 순천만은 2018년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MAB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 유일하게 갯벌연구소를 보유할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7개 국가의 습지보존 등 랍사르 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 랍사르지역센터가 있다.

순천시는 전국적으로 5번째로 국가 지정(75점) 및 등록문화재(15점)를 보유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2022년 1월 전남 최초로 문화유산과를 신설하였으며 2023, 2024년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세계유산 선도기지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순천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민과 함께 가꾸고 즐기는 문화유산 도시’라는 비전 아래 국내외에서 유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1. 문화민주화를 실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 하향식 소통 방식에서 시민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끄는 쌍방향 소통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 주민 중심의 보전철학이 구현되어야 한다.
-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체험이 고급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뢰, 소통, 창조의 순환을 가동해야 한다.

2. 문화의 힘 power of culture를 구현하는 인력을 양성한다.

- 보호와 활용, 산업화 등 관련분야에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 유산, AI,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영역이 부상하고 있다.
- 콘텐츠 기획사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관, 학교, 산업시설을 잇는 훈련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등재 당시의 상태를 지속시키는지 살펴야 한다.

- 운영 지침에 의거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나 합리적인 활용은 허가되고 있다.
- 시민과 전문가의 모니터링 시행을 적극 권장한다.

4. 세계유산 브랜드 가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국내 유명한 세계유산 지역의 국제적 홍보가 미흡하다. 국제관계도 미숙한 단계이다. 다양한 언어의 기사, 연구보고서, 시청각 자료, SNS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 마. 세계유산 브랜드 추가 작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낙안읍성 이외에 무형유산의 발굴, 이의 국제 브랜드화에 노력한다.
- 바. 순천시민은 글로벌 리더로서 문화간 이해, 문화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참고문헌

- Monika Gottler, Matthian Ripp, *Community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Guidebook*, OWHC, 2017.
-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1972
- _____, *Operational Guidelines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 _____, *Managing Tourism at World Heritage Sites*, World Heritage Manuals No.1.
- _____, *Human Evolution: Adaptations, Dispersals and Social Developments*, World Heirgae Paper Series No.29
- _____, UNEP, *World Heritage and Tourism in a Changing climate*. 2016.
- <https://globalphiladelphia.org/our-world-heritage-city/world-heritage-week>